

행진

www.airforce.go.kr

행정간행물

25090 - 33246 - 44 - 98008



2002. 10

제292호

공군본부

2002. 10. 제292호 목차



대한민국 최초 여성 전투기조종사·수송기조종사 탄생

지휘봉	'02-2차 고등 비행교육훈련 수료식 훈시문	3
공군은 지금		4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		7
칼럼	여성의 힘, 조국영공의 또 다른 수호자	8
기획특집/여성 전투기조종사 시대 개막	대한민국 최초 여성 전투기조종사 탄생	10
	여성 조종사, 그들을 알고 싶다	12
	공군, 여성 전문인력의 용광로	13
	공군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4
기획특집/국산 초음속 항공기 시대	'초음속 항공기' T-50 초도비행 성공	15
	시험비행의 숨은 주인공, Flight Test Conductor	16
기획연재/철저해부! F-15K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 F-15K (1) 구조설계 기술	18
Air Power	제지(counter land) 작전(2)	20
항공기 열전	A400M 유립형 미래 대형수송기	22
생각해 봅시다	와이어리스와 군 그리고 주파수	23
비상출격	하늘사나이 바다로 가다 - CCT 수중침투훈련	24
현장탐방	수해복구완료, 100% 완벽 항공작전 개시!	26

I Love Air Force	20전투비행단에서의 49일	28
	멋진 공군장병 여러분, 술 한 잔 합시다!/잊을 수 없는 경험, Air Power Day 2002	30
Green Air Force	물을 물로 보지마! - 21세기의 물전쟁	32
마음의 양식	누추한들 어떡리요?	33
추억의 사진 한 장	제14주년 국군의 날 기념 Air Show(1962)	34
클래식 에어쇼	신화가 된 항공기를 찾아서 - Flying Legends Airshow	35
GAME ALERT	비행시뮬레이션 게임 이야기 - F-16 Falcon(2)	38
기지극장	로맨틱 코미디와 조폭 영화의 결혼 - <가문의 영광>	41
노래의 날개 위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비창·월광·열정	42
책으로 읽는 세상	경주,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사는 곳 - 『능으로 가는 길』	43
지구촌 여행	다양한 삶의 현란함, 프랑스	44
기상전망대	시리도록 청명한 시월에	47
생활법률교실	술, 확실히 취하자?	48
건강 365일	독감 예방, 지금이 적기	49
이달의 역사인물	독립인물/고광순(高光洵)	50
	문화인물/신숙주(申叔舟)	50
	호국인물/라희봉(羅熙俸)	50
책읽는 공군인이 아름답다	Shall we read? - 나의 독서법(2)	51
장병문예	고맙다, 내 친구 백왕	52
	2025년의 공군	54
	수해복구,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55
항공계 소식	KT-1 비행시뮬레이터 전력화 外 3건	56
알립니다	공군 제110기 남/여 사관후보생 모집 外 4건	57
퀴즈로! 퍼즐로!		58
문화가 소식	패시네이팅 탕고 첫 내한공연 外 2건	59



참모총장 공군대장 김 대 욱



최근의 한반도 주변 안보정세는, 답보상태이던 남북 관계가 빠른 속도로 급진전하면서 매우 유동적인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개선이 곧 군사적 위협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우리 군의 기본임무는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군 전 장병은 투철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총력을 경주함으로써,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다 확고히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군과 여성사에 또 하나의 신기원을 연, 여성 조종사의 탄생을 축하하고 신임 조종사 여러분의 武運長久를 기원합니다.

'02-2차 고등 비행교육훈련 수료식 훈시문 중에서

R.O.K.



Air Force

1 2
3 4
5 6
7 8

9 10

- 1 대한민국 최초 여성 전투기조종사·수송기조종사 탄생. 한정원(수송기), 박지연, 장세진(수송기), 편보라, 박지원 중위(왼쪽부터)
- 2 어려운 이웃돕기 행사에 성금을 전달하는 김대욱 참모총장
- 3 제17회 공군참작전 개최
- 4 제5전술공수비행단, 부산 아시안게임 성화 공수
- 5 공군대학 정책전략과정, 한국 공군 최초로 CN-235 수송기를 이용, 중국 공군 방문
- 6 작전사령부, 한국문화 홍보행사 실시
- 7 한·미 공군, 오산기지 개방행사 'Air Power Day' 실시
- 8 제5전술공수비행단, 강릉 수해지역에 구호물품 수송
- 9 제15혼성비행단 255 특수작전 비행대대, 공중침투훈련 실시
- 10 제10전투비행단, 공·육 합동 활주로 피해복구훈련 실시



R.O.K. Air Force



- 11
- 12 13
- 14 15



- 11 공군75기상대, 충주기상대 초청행사 실시
- 12 군수사령부 82항공정비창 '돌풍분임조',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공기업 부문 대통령상 수상
- 13 제10전투비행단, 방글라데시 국방대학원생 부대방문
- 14 제11전투비행단,故이근석 장군 기념관 개관
- 15 제17전투비행단, 어려운 이웃돕기 동전따이기행사 실시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면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군,

그러나 마음이 따뜻한 공군인들이 펼치는 국민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다.

재난 구조 및 복구작업, 의료지원, 농번기 일손돕기, 자원 봉사활동 등

언제, 어느 곳에서도 든든한 국민의 보호자로, 웃음 띤 다정한 이웃으로 다가가는 공군!

그들의 정성과 사랑이 국민들에게는 더없는 신뢰를 안겨준다.

1

2 3

4 5

1 제5전술공수비행단, 수해를 입은 김해 한림면 수해복구 지원

2 제20전투비행단, 장애인 자활농장 수해복구 지원

3 방공포병사령부, 태풍피해를 입은 과수농가 대민지원 실시

4 제10전투비행단, 지역 독거노인에게 성금 전달

5 항공의료원, 지역 복지시설 대상 의료지원 실시



여성의 힘, 조국영공의 또 다른 수호자

- 최초 여성 전투기조종사 탄생의 의미 -

여성부장관 한 명 숙

우면과위가 21세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작년 사상 처음으로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는 여생도들의 힘찬 구령소리에 맞춘 경례를 받으면서, 이제 여성들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올해 창군 이래 최초의 여성장군 탄생을 접하면서 그 느낌은 더욱 뚜렷해졌다. 고유한 특성상 우리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군에서 여성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위가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여성부장관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21세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명제라는 것은 이제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이에 우리 여성부도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지위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펴나가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의 군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부 출범 이후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존속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공군에서는 지난 1997년 3군 사관학교 최초로 여생도를 선발하여 군조직에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작년에 최초의 여성 전투기통제관을 배출한데 이어, 올해 공군 창군 53주년인 되는 해에 최초의 '여성 전투기조종사'를 배출함에 따라 역사적인 '여성 전투기조종사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미국, 캐나다 등 일부 소수의 국가에서만 배출된 여성 전투기조종사를 우리 공군이 배출함에 따라 다시 한번 우리나라 여성의 우수성과 능력을 확인하

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군을 비롯한 여성인력의 군내 진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달, 여성부에서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2002 여성 신직업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수많은 초·중·고 여학생들이 장래 자신의 직업을 미리 살펴보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는데, 인기직업군 중의 하나가 바로 여군이였다. 여군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여군들이 우리사회에 기여한 바가 매우 컸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 해외뉴스를 통해 미국에서는 해외로 근무처가 바뀐 군인 아내를 따라 직장을 버리고 동반 부임하는 미국 남성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었다. 남편들은 '가정전선'에 배치되고 있으며 미국의 변화하는 성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외신은 전하고 있었다. 그만큼 여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사회전반에 부각된 것이다.

정부는 현재 장교와 부사관 등 총 2천6백여명인 여군의 수를 2010년까지 5천4백명으로 늘리고 2020년에는 지금의 3배 규모인 7천여명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여성들에게 제한되어 있던 군의 문호가 여성인력 확대계획을 통해 넓어지면서 군내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만큼, 여성의 권익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란 측면에서 여성부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보통 남자들은 군부대 마크만 봐도 가슴이 뭉클해진다고 한다. 여군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모두 스스로 군에 입대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사명감이 투철할 수밖에 없다. 전투력이 약화된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남자보다 뛰어난 체력을 가진 경우도 있고, 섬세한 분야에서는 더욱 탁월한 능력을 보일 수 있다. 특히 전투기조종과 같이 섬세한 측면이 요구되는 분야는 여성이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성 전투기조종사의 탄생은 21세기 전문 여성인력 배출을 통해 여성의 지위를 한 단계 높은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세기 산업사회는 '힘'이라는 물리적 강도에 따라 생산력이 결정되었다. 즉,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는 물리적 힘보다는 창조성, 섬세함 등이 강조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그만큼 과거와는 달리 여성들이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통

로가 넓어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사회상황에서 우리 여성들은 '여성이니까 혜택을 달라'는 자세에서 벗어나 스스로 전문성을 무기로 훌륭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이 진정한 세계 10위권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활용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보고가 있다. 이제 '21세기 여성인력 양성과 활용이 바로 국가경쟁력'이라는 명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여성들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책임질 수 있는 주체, 남성과 동등한 사회발전의 한 축으로 다가서려는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이번에 탄생한 여성 전투기조종사들은 그동안 여성들에게 전인미답의 영역이었던 전투기조종사 분야에 첫 걸음을 내디디며 또 하나의 역사를 이루었다. 앞으로 여성의 눈으로 조국 하늘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 ❶

여성 전투기조종사 시대 개막

빨간마후라의 역사를 다시 쓴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전투기조종사 탄생

대한민국 역사상 첫 여성 전투기조종사가 탄생했다. 1997년 3군 사관학교 최초로 여생도를 받아들인 공군 사관학교에 입교하여 여성 조종사의 꿈을 키워온 박지연, 박지원, 편보라, 장세진, 한정원 중위는 지난 달 26일, 꿈에 그리던 빨간마후라를 목에 걸고 역사적인 여성 조종사 시대를 활짝 열었다. 전투기조종사(3명)와 지원기조종사(2명)로 각각 임명된 이들은 영공방위의 최일선에서 남성 조종사들 못지 않은 능력을 통해 21세기 선진 정예공군의 초석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4년간의 엄격한 사관학교 교육과 2년여에 걸친 혹독한 비행훈련을 거쳐 탄생한 이들의 지난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금녀의 벽을 깨다!

1997년 매서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2월의 성무연병장. 5주간의 가입교 기간동안 구보, 태권도, 사격, 화생방, 총검술, 각개전투, 유격, 행군 등 난생 처음 받아보는 군사훈련을 반복숙달하며 예비 메추리가 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거친 19명의 여생도들이 금녀의 벽을 깨고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하였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군사관학교에 들어온 이들은 전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여성 조종사의 꿈을 키워갔다.

처음으로 하늘을 날다

1999년 여름. 더위와 팽팽한 긴장감이 하나가 되어 수많은 땀방울로 흐르는 순간, 바람에 몸을 싣고 뛰어 내린 여생도들. 전투조종사가 갖춰야 할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함양하고 유사시 생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낙하산 공중 강하훈



련을 실시한 여생도들은 C-130 수송기에 탑승, 1,500ft 상공에서 낙하하여 한 마리 새처럼 창공을 날았다.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조종사가 되기 위한 첫 관문 돌파!

2000년 7월. 전투조종사가 되기 위한 첫 관문인 비행 적성훈련(Aero-Physiological Training). 여생도들은 ▲모의로 조성된 고공환경을 통해 저산소증 및 저압환경에서 발생하는 인체의 생리적인 장애현상을 체험하는 <저압실 비행훈련> ▲공중 비상상황 발생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비상탈출 훈련> ▲항공기 기능형태를 모의조작하여 착각 현상을 체험하는 <비행착각훈련> ▲항공기



공중기동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체험하는 <가속도 내성훈련> 등을 받았다. 이제야 겨우 한발짝 나아갔을 뿐이다.

단독비행, 하늘이 내 안에 있다!



2001년 5월. 활주로를 서서히 미끄러져 내려오는 비행기, 동료들의 환호성, 조종간을 통해 전해오는 엔진의 짜릿한 진동. 헬멧을 벗자 이마를 스치는 바람이 한없이 시원하게 느껴진다. 지난 봄 입관을 한 7명의 여 소위들은 초등비행훈련기인 T-41 단독비행을 전원 성공적으로 마치고 4개월간의 초등비행훈련을 통과했다. 전투조종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조종기량을 연마하는 초등비행훈련을 통해 어느덧 하늘은 소리 없이 그들 안에 자리잡고 있었다.

'보라매 5자매' 라 불러다오!

본격적인 비행훈련을 받는 중등비행훈련. 초등비행훈련이 끝나자마자 8개월간 공중조작, 편대비행, 계기비행, 항법비행, 야간비행, 중력내성, 스펀, 저고도 항법 등 전투기조종에 필요한 비행기량을 정신 없이 습득했다. 최초의 국산훈련기 KT-1의 뛰어난 성능에 놀란 것도 잠시, 이 녀석과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에 밀려오는 잠



과 피로도 잠시 접어두어야 했다. KT-1, T-37 두 기종의 훈련기로 혹독한 교육을 마쳤을 때, 7명은 5명으로 줄어 있었다.

역사를 새로 쓰다. 여성 전투기조종사 탄생!



2002년 9월. 굳게 다문 입술이 조금씩 아프게 느껴진다. 소리보다 빨리 날아야 한다. 초음속 훈련기 T-38과 T-59는 장난이 아니다. 고등비행훈련을 받는 9개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알 수가 없다. 월드컵? 붉은 악마? '대~한민국' 한번 제대로 외쳐보지 못했지만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내 동료가 자랑스럽다. 야간비행을 비롯, 전천후·특수·편대비행 등 고난도 훈련을 완수한 5명의 여 조종사들은 21개월간의 대장정을 뒤로하고 여성 조종사로 태어났다. 빨간마후라의 역사가 새로이 써지는 순간이었다. 📌

여성 전투기조종사 시대 개막

여성 조종사, 그들을 알고 싶다

21개월간의 길고 긴 훈련기간 동안 세포 하나까지 괴롭히던 육체적 고통과 다음 날의 비행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잠들 수 없었던 불면의 밤들, 그리고 날지 않는 기체의 악몽 속에서 정신적 한계를 경험했던 5명의 여 조종사들. 그들에게 물어 본 6가지 송곳질문 30개의 정예답변!

1. 조종사가 된 소감
2. 앞으로의 계획
3. 힘들었던 시기
4. 기억에 남는 순간
5. 후배들에게 한마디
6. 비행훈련 중 가장 하고 싶었던 일



박지연 중위

1. 무척 기쁘지만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느껴진다.
2. 대한민국 공군으로서, 전투조종사로서 한 사람의 몫을 충실히 해내고 싶다. 덧붙이면 공군에 꼭 필요한 사

람이 되고 싶다.

3. 고등훈련과정의 가장 힘들었다. 하지만 그만큼 재미있기도 했다.
4. 단독비행, 그리고 꿀맛 같은 수료식
5. 철저한 프로정신, 책임감, 그리고 즐거라!
6. 제즈댄스, 여행



박지원 중위

1. 훈련받는 동안 좀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이 후회로 남는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생각하고 비행생활에 최선을 다하겠다.
2. 열심히 비행실력을 갈고 닦아 최우수

조종사나 TOP GUN, 기회가 된다면 교관도 해보고 싶다.

3. 슬럼프
4. 중등비행훈련에서의 첫 편대이륙
5. 조종사가 되기 위한 준비(체력, 공부)를 철저히
6. 무엇인가 배우기(악기, 그림, 춤)



편보라 중위

1.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 훌륭한 파일럿이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
2. 선배조종사들과 대등한 실력을 갖추는 것. 기회가 된다면 교관생활도

해보고 싶다.

3. 아직 비행에 대한 적응이 부족하던 시기
4. 매 과정 첫 단독비행. 특히 초등비행훈련 때는 가장 마지막에 단독비행을 나가 더 의미가 있었다.
5.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있는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비행에 매진했으면 한다.
6. 배낭여행



장세진 중위

1. 모든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하지만 많은 것을 얻었기에 어떠한 후회도 없다.
2. 주변사람들, 나아가 공군에 꼭 필

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3. 포기하지 않으려 노력하면서도 마음이 약해지려는 그 순간!
4. 고등비행훈련 때 저·중고도 비행
5. 어떤 일이든 이루어 내려면 고통과 희생, 노력이 필요하다. 그 일이 힘들다고 포기한다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
6. 등산동아리 회원들과 주말등산 하기



한정원 중위

1. 기종과 분야는 다르지만 비행훈련시 배웠던 전투조종사로서의 마인드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임무에 임하겠다.
2. 영공방위뿐만 아니라 해외파견 근무까지 해보고 싶다.

3. 중등비행훈련과정
4. 고등훈련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다.
5. 매순간 최선을 다할 것
6. 다음날의 비행을 생각하지 않고 편히, 일찍 잠들어 보는 것. 배낭여행

여성 전투기조종사 시대 개막

공군, 여성 전문인력의 용광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투기조종사 탄생과 더불어 공군의 여성인력정책이 굳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큰 관심이 되고 있다. 공군은 1997년 3군 사관학교 최초로 여생도 입교를 허용한 이래 49기 18명, 50기 19명(이상 임관), 51기 17명, 52기 19명, 53기 18명, 54기 17명 등 매해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여생도들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2000년 105기 사관후보생부터 여성 학사장교를 선발하기 시작하여 105기 22명, 107기 24명 등 총 46명의 여성장교를 배출하였으며 110기부터는 사관학교 교관 및 군악장교 분야까지 문호를 확대하여 여성 전문인력의 적극적인 군내 진출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군조직의 근간인 부사관의 경우 181기 부사관후보생부터 공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시킨 여부사관을 배출하기 시작하여 공군내 여성인력구조의 기본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군 여성인력정책의 모범

그러나 공군의 모범적인 여성인력정책은 단순히 양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해당 병과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 공군만의 특별한 병과 분류 원칙에 따라 수준 높은 여성 전문인력들이 공군 전병과에 골고루 포진하여 실질적인 업무 담당자로 활동하고 있다. 조종, 항공통제, 방공포, 정비, 기상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병과뿐만 아니라 교육, 헌병, 시설, 관리, 정훈, 법무, 군악, 정보, 인사, 간호 등 공군에 여성인력이 활용되지 않는 분야는 단 한군데도 없다. 특히 작년 명문 사립대학교를 졸업하고 공군사관후보생으로 임



관, 공중전의 핵심인 전투기통제사가 된 두 명의 여성장교는 군내 여성 전문인력 활용의 모범적 사례가 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그대, 공군으로 오라!

현재 공군에는 장교·부사관·군무원을 포함하여 1,300여명의 여성 전문인력이 다양한 직급과 보직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 달 여성부가 주최한 <여성 신직업 페스티벌>에서 공군 홍보부스는 80여개의 여타 홍보부스를 제치고 단연 눈길을 끌었다. 그만큼 여성들의 공군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21세기 여성 전문인력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공군이 거듭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

여성 전투기조종사 시대 개막

공군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 홍보부스가 가지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여성 신직업 페스티벌〉에 군 홍보부스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군인’이라는 직업이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군내 진출’을 신직업이라 할 만큼 새로운 도전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각군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여성능력 발휘의 장으로 ‘군대’라는 새로운 영역을 제시함으로써 군에 대한 막연한 환상, 호기심을 넘어 좀더 실제적으로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공군의 여성인력정책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지난 1997년 3군 중 공군사관학교가 가장 먼저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했고, 지난 2000년부터는 여 사관·부사관후보생을 받아들여 육군 여군학교와는 달리 남자후보생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함께 훈련을 받게 하는 등 공군은 여성인력정책에 있어서 늘 선구적인 입장이었다. 또한 여군양성과정뿐만 아니라 임관 후 보직 및 진급에 있어서도 남자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작년 2월 공군 첫 학사장교로 임관한 105기 사관후보생의 경우 전체 여성장교의 95%가 장기복무를 희망하고 있어, 평생직업으로 공군을 선택한 것에 큰 만족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 신직업 페스티벌〉 공군 홍보부스에서 홍보요원으로 근무한 제30방공관제단 김영실 소위(사후 107기)를 만나 공군의 여성인력정책과 여성의 군진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여성들의 군진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진국일수록 직업에 대한 성 고정관념이 약하다. 전문야에 걸쳐 남녀가 고루 분포되어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군진출은 우리 군이 ‘선진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전투력=체력=남자’라는 단순공식으로, 군인은 남자만의 직업이라 인식되던 시대는 지났다. 현대전, 미래전의 양상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풍부한 감성은 경직되기 쉬운 군시스템에 창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한다.

군에 지원하려는 여성들에게 한 말씀

군에 지원하는 많은 여성들은 군대가 ‘안정적인 직장’이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한다. 물론 그것은 군대의 큰 장점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안정적 직장’이라는 것이 사회의 다른 직장보다 ‘노력을 덜 해도 되는 곳’, 혹은 ‘실력을 덜 갖추도 되는 곳’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군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그런 점에서 군인이라는 직업은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가 있다. ‘국가가 선발한 사람’, ‘국민이 믿고 그 손에 무기를 쥐어 준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오히려 더 노력하고 더 우수한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군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길 기대한다. Ⓡ

국산 초음속 항공기 시대

‘초음속 항공기’ T-50 초도비행 성공

엄청난 굉음과 함께 활주로를 질주하는 기체. 속도에 속도를 더하던 기체는 한껏 양력을 받으며 날렵하게 떠오른다. 소실점을 향해 빠르게 날아간 기체는 소리의 벽에 부딪히는 파열음을 길게 늘어뜨리며 사라져 간다. 지켜보던 사람들의 끊어질 듯 팽팽한 긴장감은 일순 환호성으로 바뀌며 커다란 울림으로 활주로 위에 흩어진다.

최초의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 GOLDEN EAGLE의 역사적인 첫 시험비행이 지난 8월 20일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루어졌다. 작년 10월 31일 출고식을 가진 이후 10여 개월만에 실시된 이번 시험비행에서 T-50은 활주로 주행, 이륙, 비행 및 착륙에 이르는 전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시험비행은 지난 1997년 10월부터 공군이 사업을 관리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미국 록히드 마틴社 등 국내외 협력업체와 더불어 항공기 설계,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개발, 전방·중앙·후방 동체 등의 부분품 제작과 최종 조립 등 개발의 전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다.

세계적으로 자체개발한 고유모델의 초음속 항공기를 보유한 국가는 12개국에 불과해 이번 시험비행의 성공은 우리나라가 항공선진국의 대열

에 올라설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T-50은 F-16, F-15, F-22, 라팔 등 세계 최고의 성능을 지닌 전투기의 조종훈련을 위해 설계된 고등훈련기로서 이미 노후화된 세계 고등훈련기 시장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최소 800대, 시장 점유율 25%, 총 300억 달러 상당의 해외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별칭인 GOLDEN EAGLE은 독수리와 조류 중에서 유일하게 사냥을 통해 살아있는 먹이를 잡는 맹금류로 황금색 목털을 지니고 있는 것에서 유래되었으며, T-50은 이러한 별칭에 어울리는 ▲고도의 기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비행제어 시스템 ▲신뢰성과 안정성이 향상된 첨단 디지털 엔진제어 방식의 F404-GE-102 엔진 ▲전투기보다 높은 구조하중 기준을 적용한 견고한 기체구조 및 착륙장치 등을 장착해 동급 최고의 성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군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번 T-50 고등훈련기의 개발 성공이 21세기 ‘항공우주군 건설’이라는 공군의 비전과 ‘세계 10대 항공기 수출국 입성’이라는 국가 항공산업의 발전목표를 달성하는 새로운 이정표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50 항공기 제원		
제 원	전 장	43.1ft(13.14m)
	전 폭	30.1ft(9.17m)
	전 고	16.1ft(4.91m)
성 능	엔진추력	17,700lbs
	최대이륙중량	26,400lbs(12,000kg)
	자체중량	14,200lbs(6,455kg)
	최대속도	mach 1.4
	실계하중	-3 / +8G
	상승고도	48,000ft(14,630m)

국산 초음속 항공기 시대

시험비행의 숨은 주인공

Flight Test Conductor

제52시험평가전대 시험비행지원실 소령 권진호



T-50 개발단계에서의 비행시험은 T-50 항공기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분석하기 위한 자료수집 과정의 일환이다. T-50 항공기의 설계자 혹은 제작자들은 T-50 항공기의 비행특성 및 안전성에 관한 예측치를 지상시험, 분석자료, Computer Simulation을 통하여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치가 실제 비행환경에서 얻어진 자료와 얼마나 근사한지는 그 누구도 확신을 못한다. 그러므로 항공기의 특성 및 안전성에 관한 증명을 위해서는 실제 비행시험을 통해서 획득된 자료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만, 세계 여러 나라의 비행시험 역사에서 예측과 실제가 맞지 않아 사고로 이어져 인명과 항공기 손실을 가져온 예는 무수히 많다.

이러한 비행시험을 보다 안전하게 수행하고, 더욱 효율적인 비행자료 수집을 위해 시험비행 기술사는 비행시험 전 수행해야 할 시험항목 (Test Point)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행시험카드(Flight Test Card)를 작성하여 비행시험에 적용한다. 또한, T-50 시제 항공기에는 수백 개의 감지기(Sensor)가 곳곳마다 장착되어 있어, 비행시험 중에 수천 개의 계측요소(Parameter)가 통제실(MCR : Mission Control Room)로 전송되어 현재의 비행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제실 Monitor에는 시험비행조종사가 수행하

는 조종간 (Stick), Throttle의 움직임, Switch/Lever 조작, 엔진, 자세, 항법계기, 항공기의 반응 등이 모두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심지어는 조종사의 숨소리, 기침 소리까지 모두 전송되어 통제실 요원에게 생중계 된다. 실로 시험비행 조종사와 통제실 요원들은 한몸이 되는 것이다.

통제실이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주왕복선 발사장면이라든가 아폴로 13호, 아마겟돈 같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NASA의 통제실을 떠올리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통제실의 Flight Test Conductor는 1시간 남짓한 비행시험을 통하여 시험비행기술사에 의해 계획된 임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필요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획득하도록 조종사의 비행조작을 유도한다. 또한, 발생가능한 이상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험비행조종사가 취해야 하는 조치를 조언하고 시험의 계속 진행여부를 판단·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 소티의 성공적인 비행시험을 위해 통제실 내에서는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엔진, 조종 안정성, 유압, 환경, 항공전자, 무장 등-이 시험항공기로부터 전송되는 수천 개의 계측요소 (Parameter) 중 자신의 분야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주시하면서 비행자료를 획득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각 분야별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엔진 전문가는 유압, 환경이나 무장에 대한 전문

적 지식이 없으며, 특히 비행시험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엔진이 아무리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해도 타 계통의 뒷받침이 없다면 비행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Flight Test Conductor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Flight Test Conductor는 각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통제실 내 수십 명의 각기 다른 전문가들의 정보를 융화시켜 효율적이고 안전한 비행시험으로 연결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마치 영화, 드라마, 교향곡을 창조하는 감독, PD, 지휘자처럼 비행시험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다.



세계 유수의 시험비행교육 전문기관에서는 시험비행조종사와 시험비행기술사의 교육 과정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수료 후 세계적으로 공인된 시험비행기술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는 파이오니어

T-50 1호기 Test Pilot 조광제 중령

“착륙 직후 캐노피를 여는 순간, 국내 항공사(航空史)의 한 자락을 장식했다는 감격에 가슴이 벅차움을 느꼈습니다.” 국내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 T-50의 초도비행을 무사히 마치고 활주로에 안착한 테스트파일럿(시험비행조종사) 조광제 중령.

“일반적으로 개발 항공기의 초도비행이 완전한 안전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실시되리라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항공기 개발의 성숙도에 따라 불안전 요소를 최소화할 따름인데, 우리나라의 항공기 개발경험에 비추어볼 때 잠재적인 불안전 요소는 언제나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중령이 테스트파일럿의 길에 들어선 것은 지난 1992년. 그 후 1993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국립 시험비행학교에 입학하여 시험비행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귀국 후 그는 공군의 테스트 파일럿으로서 KTX-1 개발시험에 참여하여 스핀시험, 엔진 공중 재시동 시험 등 약 3년간 200여 시간의 시험비행을 수행해 최초 국산훈련기 KT-1이 탄생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한 번도 날아보지 않은 항공기로 비행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만도 하지만, “평소 묵묵한 파이오니어(Pioneer)가 되고자 노력했다”며, “도전하는 인생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꿈도 있는 것 아니겠나”며 웃는다.

테스트파일럿으로서 KTX-1을 비롯, F-15, F-18, 라팔 등 30여 기종을 조종해본 그는 주기종인 KF-16 450시간을 포함, 총 2,500시간의 비행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베테랑 전투조종사이기도 하다. 존경하는 인물로, 세계 최초로 음속을 돌파한 척 예거를 꼽는 조중령은 척 예거 자서전 서문 첫 문장인 “나의 마지막 비행이 언제가 될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문구를 가장 좋아한다고.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 F-15K

(1) 구조설계 기술

항공사업단 전투기사업처

1. 구조설계 기술
2. 임무체계 기술
3. 무기체계 기술

F-15K 전투기는 향후 30~40년 후까지 운용될 전투기로서 외형만으로는 성능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적용된 기술수준을 알아봄으로써 이 전투기의 성능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F-15K 적용 기술

구 분	적 용 기 술
구조설계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idlock 구조물 접착기술 · 보론 복합재 구조물 설계기술 · SPF/DB 티타늄 구조물 성형기술
임무체계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이더 기술 : APG-63(V)1 · 극초단파 전력 모듈(MPM) 기술 · 헬멧 장착 자동 조준장치(JHMCS) 기술 · 최신형 임무 컴퓨터(ADCP) · 전투기용 데이터 링크(FDL) · 최신형 전방 투시 적외선 장비(FLIR) · 평면 시현 기술(Flat Panel Display) ·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무기체계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PS 유도무기 기술 · JDAM, WCMD 및 JSOW · AIM-9X 미사일 · Harpoon Block II (AGM-84) 기술 · SLAM-ER 미사일



전투기의 성능은 기동성, 전투행동반경뿐만 아니라 탑재된 전자장비, 무기체계 장착능력 등 적용된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F-15K 전투기는 향후 30~40년 후까지 운용될 전투기로서 외형만으로는 성능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적용된 기술수준을 알아봄으로써 이 전투기의 성능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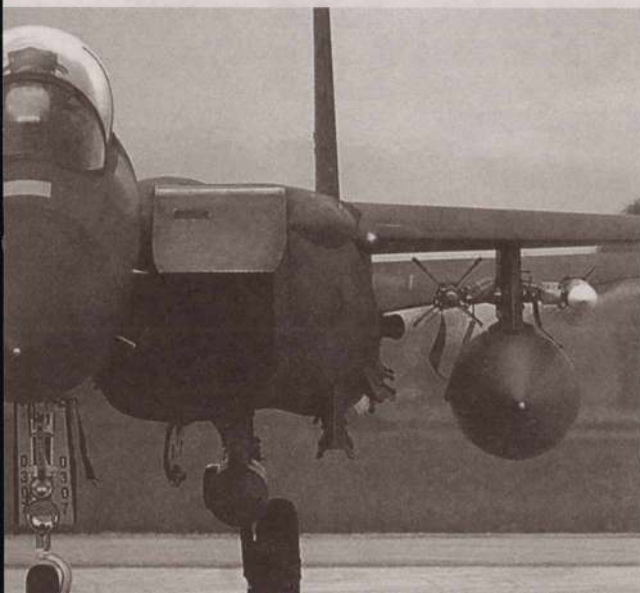
한국 공군이 선정한 F-15K에 적용된 고유 기술들은 구조설계 기술, 임무체계 기술, 무기체계 기술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그중 구조설계 기술은 다시 3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Gridlock 구조물 접착기술**은 암·수 형태의 홈을 만들어 두 개의 구조물 표면을 접착하는 기술로 꼬리날개, 조종면 등의 아래/위 Skin 연결시 적용되며, 기존의 하니콤 구조물보다 2배 이상의 강도 증가 및 정비성 향상을 가져다주었다.

보론 복합재 구조물 설계기술은 기존의 탄소섬유(Graphite) 강화 복합재의 단점인 고온에서의 강도저하를 개선하였다.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는 고온에서 강도가 급격히 약화되어 마하 2.0 이상의 속도 유지가 곤란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론 복합재를 적용함으로써 고속상태에서의 마찰에 의한 고열을 견딜 수 있게 되었다.

고온 증착기술을 이용한 SPF/DB 티타늄 구조물 성형기술(Superplastic-formed, Diffusion-Bonded Titanium Structure Technology)은 티타늄 구조물을 이음매 없이 연결하는 성형기술로 F-15K 후방동체 구조물에 적용함으로써 후방동체의 부품수를 F-15C/D의 772개에서 46개로 축소하고, 10,000개 이상의 희스너(연결용 나사못)를 감소시켜 작업량 및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미 공군교리 2-3

제지(counter land) 작전(2)

전투발진단 전쟁연구실

1. 전략공격
2. 우주 작전(Space Operation)
3. 제지(counter land) 작전
4. 정보 작전



근접항공지원(CAS : Close Air Support)

근접항공지원은 우군전력과 매우 근접해 있는 적 표적에 대한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에 의한 공중행동이며 우군전력의 화력 및 이동과 각 공중임무의 세부적인 통합을 요한다. 근접항공지원을 운용할 때 두 가지의 주요 요소로 임무항공기에 대한 융통성 및 실시간 표적제공과 표적에 근접해 있는 우군전력에 대한 공격방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확히 운용하기 위한 전술과 지휘통제가 요구되며 이로 인하여 오늘날 근접항공지원의 지휘통제체제가 형성되었다.

근접항공지원을 요청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이는 상황이 얼마나 유동적이며 가용한 사전임무 정보가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 있다. 기계화된 임무는 특정한 시간에 계획되었음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지상군에 가장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시간으로 계획한다. 긴급 요청된 근접항공지원은 통상적으로 급변하는 전장에서의 예상하지 않은 필요로부터 발생하며, 기타 임무로부터 항공기를 전환 및 재계획하는 것이 요구된다. Push CAS는 정기적으로 계획된 간격으로 임무지역에 항공기를 위치시키고, 즉각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거나 준비가 된 항공기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반응시간은 감소되지만 요구되는 소티는 증가되며 전력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는 기계화된 예비표적에 배당되도록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근접항공지원은 공군에 의해 수행되는 가장 복잡한 임무 중의 하나로서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가까운 장래에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집중하기 위한 공중우세 획득, 정확한 표적식별, 순조로운 기상, 융통성 있고 민감한 지휘 및 통제가 요구된다. 공중 승무원 및 지상 통제관의 기량은 임무성공에 극히 중요하며 공중 및 지상 전력간에 공동운영이 가능한 신뢰성 있는 통신이 필요하다.

지휘통제 및 교육훈련

전구항공통제체계(TACS)는 항공우주작전본부(AOC) 및 하급 통제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집권화된 기획 및 통제를 수행하고, 모든 구성군 작전의 분권화된 실행을 용이하게 한다. 항공우주작전본부는 공군구성군사령부를 위한 작전적 지휘본부로서 전략개발, 전투계획, 전투작전 및 공중기동의 네 가지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항공지원작전본부(ASOC)는 지상작전의 직접적인 지원에 있어서 항공우주력의 실행을 위

한 전구항공통제체계의 주요 통제기구이며, 군단 및 그 이하 수준에서 지상군을 위해 항공우주력을 협조 및 지시한다.

제지작전의 본질로 인해, 전구항공통제체계와 타 구성군 지휘통제망 사이의 상호 연결성은 특히 근접항공지원을 제공할 때 매우 중요하다. 또한, 모든 피지원 사령관과 군은 항공우주작전본부가 기획 및 실행하는 것에 대해 그들 구성군의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항공차단을 위한 표적추천을 조정하기 위해 항공우주작전본부 내에 연락부서를 갖는다.

공군구성군 사령관은 지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공우주 작전계획에 모든 가용한 전구 항공자원을 통합시켜야 한다. 통상적으로 상당한 자원이 공중 및 우주우세를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지작전은 공중 및 우주의 통제 없이 추구될 수 있을지라도 최소한의 국지적인 우세는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항공차단과 근접항공지원에 대한 기획은 작전개념과 단계적 실행 및 협조를 위한 계획 모두를 필요로 하고, 통상적으로 작전계획의 부분으로서 포함된다. 항공차단과 근접항공지원은 병참으로부터 부대방호, 행정부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면의 지원을 필요로 하며, 원정작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핵심적인 지원문제는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

제지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공군 및 지상구성군 모두는 현실적인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지훈련은 전선(FLOT) 양면에서 공격 및 방어하는 적·아 공군 및 지상군 전력을 필요로 하므로 평시에 완전히 달성되기가 어렵다. 전면적인 규모의 훈련이 모든 제지 실무자들에게 실제에 가까운 전장조건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하여 숙련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표적을 추천하는 지상군사령관에서부터 조종사들에게 소티를 할당하는 계획요원까지 제지환경에 있는 모든 실무자들은 항공차단과 근접항공지원의 다양한 요소를 이해하여야 한다. Ⓛ



A400M 유럽형 미래 대형수송기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실

A400M 항공기는 유럽지역에서 현재 운용 중인 400대 이상의 군용수송기(C-130 및 C-160)가 노후화되어 이를 대체하기 위한 방편으로 1989년부터 Airbus사가 주도하여 유럽 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생산계획 중인 미래 대형수송기(FLA : Future Large Aircraft)이다. 2001년 독일의 예산 획득이 순탄치 않아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A400M 수송기 개발에 참여한 국가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영국 등 8개국이며, 이들 국가가 FLA ESR(European Staff Requirement)에 서명함으로써 사업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미래 대형수송기는 기존의 군용수송기가 수행하는 군사적 목적의 전술임무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적 분쟁·테러에 대비한 신속대응군의 전개, 인도적 개입(지진, 홍수, 기아 구제) 등 연합작전 수행능력까지 요구됨에 따라 새로운 성능향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예상되는 작전요구성능으로 유럽군이 운용

▶ 제원 및 성능

- 기장/기고/기폭 : 42.36m(138ft 4¼in)/14.73m(48ft 4in)/42.17m(138ft 11¼in)
- 엔진 및 추력 : 미확정(4개 엔진으로 9,250shp에서 12,000shp 정도로 예상)
- 화물 공간 : Super Puma, 2대의 Tiger 헬기 탑재, 9개의 Pallet, Patriot SAM 체계, 20ft 컨테이너 2개 각각 탑재 가능
- 최대이륙중량 : 256,840lbs
- 최대순항속도 : M.72(순항 속도 : M.68)
- Ferry Range : 5,175NM

하는 최신 차량이나 헬기, 단위 교체장비, 컨테이너, 신속대응군·인도적 구제군에 요구되는 대형 지상이동장비의 탑재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임무에 필요한 물자를 최대한 적재한 상태에서 원하는 지역에 제한 없이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비행능력, 임무지역까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고속 순항능력, 군사적 전술임무(공중투하) 수행을 위한 저속성능, 단거리/비포장 활주로에 대한 직접 구제나 물자공급을 할 수 있는 성능 등을 보유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항공기 제작시에는 참여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고 Airbus사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민항기 제작기술 및 조립체계를 활용함으로써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2004년부터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A400M 항공기는 아마도 수송기 제작의 새로운 장을 개척할 것으로 보이며, 유럽의 군용수송기 미래를 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㉔

A400M 항공기 제작 개념



와이어리스와 군 그리고 주파수

공군본부 지휘통신부 대위 문 창 기

‘유선은 가라.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무선(Wireless)이 말한다.’

집안 어디를 가나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고 대부분의 연락은 휴대폰과 무선 전화기를 이용하여 공간의 제약 없이 처리한다. 이처럼 최근 우리의 모든 커뮤니케이션과 삶이 무선과 연계되어 이뤄지고 있으며 현대인들은 이미 무선으로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해져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몸 담고 있는 군은 어떠할까? 대공감시 및 관제지원, 기상측정을 위한 레이더 전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송출되고 있고 임무수행을 위해 관제사와 조종사간 수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전파라는 전달수단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기지 지휘관은 TRS(Trunked Radio System : 주파수 공용통신)를 통해 활주로에 나가 있는 참모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위험한 폭발물 처리를 위해 폭발물 처리 로봇이 무선으로 작동되고, 항공기 또는 함상에서 발사된 정밀유도무기가 정확한 공격을 위해 폭발되는 순간까지 원격조정된다. 또한 무선 데이터링크를 통해 무기체계 상호간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수 없이 주고 받는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군 작전 및 전쟁수행을 위해서는 무선이 직접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연계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생활 및 작전 수행시 무선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려면 주파

정보전·무인전·전자전·우주전 등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미래전의 특징은 최첨단 하이테크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와이어리스라는 영역이 크게 자리잡게 될 것이다.

수(frequency)라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파수는 세계적, 국가적으로 정해진 규칙과 범위 내에서 할당되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그 정해진 정책 내에서 할당된 주파수를 이용하게 된다.

최근 이동통신, 무선 인터넷을 비롯한 무선산업의 발달로 시간이 흐를수록 땅이 좁은 우

리나라의 경우에는 주파수 운용환경의 변화가 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주파수 경매제 및 총량제 도입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증장기 주파수 정책연구를 위해 산·학·연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유한한 전파자원이라는 대전제 앞에서는 와이어리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군도 더 이상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직시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가야 한다. 정보전·무인전·전자전·우주전 등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미래전의 특징은 최첨단 하이테크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와이어리스라는 영역이 크게 자리잡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계는 주파수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더 많은 주파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군도 미래의 전략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자원들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연구와 함께 관련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하늘사나이 바다로 가다

- CCT 수중침투훈련 -

제5전술공수비행단 중사 정 중 화

수면 위로 머리만 내밀고 무언가를 응시하는 번뜩이는 눈빛, 검은색 잠수복, 물이 똑똑 떨어지는 총구. 전쟁영화에 나오는 특수부대원의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CCT(Combat Control Team : 공정통제팀)요원들의 수중침투훈련은 영화의 과장된 연출을 무색하게 할 만큼 위협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다.

CCT는 전시 적진으로 최초 침투하여 아군 공수항공기 유도통제, 강습지역 선정 및 병력·물자 투하지역 운영 등 공정작전에서의 성패를 좌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진 만큼 평시에도 전시를 대비한 교육훈련을 소홀히 할 수 없다.

CCT는 주어진 임무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전지역으로의 침투를 실시하게 되는데, 저·고공 낙하산침투, 육상침투, 수중침투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그 중 수중 및 수상 은밀침투 기량향상과 해상 전술전기 개발 및 습득을 위해 연 1회 전 공군에 소속된 모든 공

정통제사들이 함께 모여 실시하는 수중침투훈련은, 그야말로 강한 체력과 정신력, 단합된 전우애가 없이는 결코 이겨낼 수 없는 훈련의 꽃이라 할 수 있다.

훈련시작 일주일 전부터 타부대 파견병력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고, 장비담당인 나는 사소한 것 하나 빠뜨릴까 체크리스트를 살펴가며 훈련장비를 꼼꼼히 정리하였다. 일주일간 계획된 사전훈련기간 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수상안전교육, 각종 영법, 장비숙달, 체력훈련 등에 어떻게 보면 미려스러운 정도로 임하는 선후배들의 모습은 '저 사람들을 저렇게 만드는 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성적이었다.

훈련이 시작되기 전 훈련내용에 대한 각자의 경험과 유용한 정보교환을 위해 항상 대화하고 토의하는 모습에서 성공적인 훈련을 짐작할 수 있었기에,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9톤 트럭 분량의 장비를 준비하면서도 내내 신이 났다. 돌아보면 우리들을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훈련



에 임하게 했던 것은 바로 서로간의 신뢰였다고 확신한다.

아침 일찍 출발해 훈련장에 도착한 시간은 대략 11시경. 훈련캠프준비와 장비정리로 꼬박 오전을 보내고, 오후 2시가 넘어서야 바야흐로 첫날 훈련이 시작되었다. 실력과 경험, 체력, 나이 등에서 각자 차이는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 돕고 이끌어 주며 격려하는 가운데 장거리수영, 잠수, 수중탐색, 해상침투전술, 체력단련 등 연일 이어지는 힘든 훈련을 하루하루 무사히 소화해 나갔다.

그 중에서 5km 장거리 맨몸 수영과 7km Fin 수영은 정말이지 가장 힘든 훈련이었다. 보트를 타고 한참 나갔을까, “지금 이 지점부터 너희들은 저 멀리 보이는 해변까지 수영으로 침투한다!” 작년보다 훨씬 멀어진 거리와 시커멓게 출렁이는 깊은 바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따끔거리며 쏘아 대는 해파리들. 4년 간에 걸쳐 해

온 훈련이라 수영이라면 자신 있었지만 엄습해 오는 긴장감은 어쩔 수가 없었다.

2, 3시간가량 헤엄쳐서 지쳐 가고 있을 때쯤, 내내 검기만 하던 바다에 하얀 모래가 비치며 목적지가 보였고 문득 뒤를 돌아보니 모든 팀원들이 막바지 힘을 다해 전진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먼저 도착한 선후배 대원들의 파이팅을 의치는 소리는 파도소리보다 더 크게 해변을 가득 울렸고, 해변을 걸어 나올 때 격려해주던 동기생의 웃는 모습 앞에서 내가 훈련을 무사히 마쳤다는 사실보다는 같은 길을 걷는 전우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더욱 기뻐다. 작년에 완주를 하지 못했던 동료들도 이번에는 모두 무사히 완주했고 부상자 하나 없이 훈련이 끝난 것에 더없이 만족스러웠다.

수중탐색훈련 중에 바위틈에 숨은 문어를 쫓다가 먹물을 뒤집어 쓴 일이며, 해파리 한 마리를 피하려다 숨어 있던

해파리 떼에 팔다리를 온통 쏘인 일, 그리고 망망대해에 둥둥 떠서 먹던 초코파이의 잇을 수 없는 그 맛.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나를 잔잔하게 미소짓게 만들 수 있었던 건 내가 동료들 처다볼 때마다 동료의 시선 또한 항상 나를 향해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신보다 옆에 있는 전우의 안전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었다.

우리 CCT 요원들은 주어진 임무완수를 위해선 '혼자가 아니라 돌리고, 돌이 아니라 함께'라는 생각으로 힘든 훈련이 기다리는 바다로 갔고, 앞으로도 계속 그곳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마다 끈기와 인내, 강인한 체력과 함께 가슴 한가득 서로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안고 돌아올 것이다. 수중침투훈련 내내 동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 CCT 선후배님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내년 훈련에도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해 본다. 🌟

수해복구완료, 100% 완벽 항공작전 개시!

- 강릉비행단 수해복구 현장을 가다 -



강릉비행단 장병들의 혼연일체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작전에 최우선을 둔 복구작업

작전에 최우선을 둔 공군의 즉각적인 복구작업과 밤낮을 가리지 않은 강릉비행단 장병들의 수해복구노력, 그리고 각급 공군부대의 지원은 단 2주만에 활주로, 유도도로, 관제시설 등 작전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정상화시키고 항공작전에 돌입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수해발생 1주일만에 활주로를 우선 복

1904년 근대적인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일일 최대 강우량의 3배에 달하는 900mm의 폭우를 강릉지역에 쏟아낸 태풍 '루사'. 강릉시내를 뒤덮은 흙탕물은 도로와 건물, 논밭과 교량을 하나로 섞어 놓았다. 태풍이 쓸고 간 거친 채적은 강릉에 위치한 비행단 역시 지나치지 않았다.

최첨단 기상예보 시스템과 각종 재해방지대책을 갖춘 군 역시 말 그대로 '기록적'인 폭우, 자연이라는 가장 강력한 적 앞에서는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인근 하천의 범람과 부대 바로 위에 위치한 저수지의 붕괴, 끝없이 쏟아지는 폭우, 비행단의 95%가 침수되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일부 항공기와 장비가 침수되기는 했지만 단 한 명의 인명과 단 한 대의 항공기 손실 없이 수해에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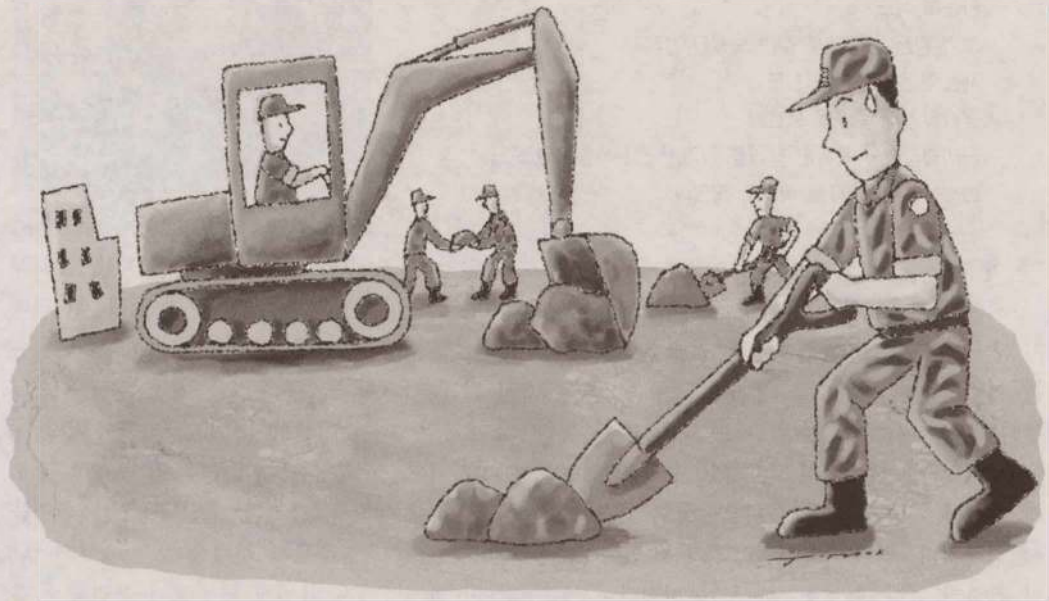
구, 전국 각지의 공군 장병들이 모은 구호물품을 C-130, CN-235 등 수송기로 공수하여 강릉지역 수재민들에게 지원하였으며, 장티푸스 예방접종, 방역활동 등 자체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중에도 다양한 대민지원을 펼쳤다.

신속한 수해복구, 영공방위 이상무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안겨준 천재(天災)는 한바탕 여름밤의 꿈처럼 지나갔지만 그로 인한 열병은 오래도록 지속되는 듯했다. 하지만 최대 2.5m 높이로 육박해오는 빗물, 그 긴박했던 상황에서도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동료와 부하를 위해, 국민의 자산인 항공기와 각종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던 공군 장병들이 있었기에 열병은 짧은 홍역만을 남긴 채 사라졌다.Ⓣ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중사 정 원 만

단 하루동안 강릉지역 연강수량의 60%, 900mm에 달하는 엄청난 폭우가 내렸다. 격납고에 있던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해 폭 50m의 앞·뒤 출입문에 1천여개의 모래주머니와 비닐을 이용하여 3단 독을 쌓는 한편, 항공기를 최대한의 높이로 고정하고, 각종 장비 및 물자를 높은 곳으로 이동시켜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저수지의 붕괴로 침수수위가 급기야는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전기가 끊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들은 로프로 서로의 몸을 묶고 창문을 통해 격납고를 빠져나온 후 생존을 위해 주변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다음 날, 침수로부터 항공기를 완전히 지키지는 못했지만 단 한 대의 항공기 유실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우리들의 가슴은 '지켜냈다'는 자부심으로 뿌듯해졌다.



항공기를 지켜낸 조중사 남편이 자랑스럽습니다/정우건 대위의 아내 맹 울 자

태풍이 몰아치던 날 남편은 부대 위기조치를 위해 집에 들어오지 못했다. 밤새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동안 폭우나 폭설이 내렸을 때 남편이 해오던 일들을 떠올리며 왜 집에 들어오질 못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밤을 지새우면서 남편 걱정과 부대에 큰 일은 없는지 궁금하던 차에 남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해 독을 쌓고, 항공기를 이동·결박하고, 물을 퍼내는 작업을 밤새 했다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질 못했다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남편이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밤에 동료들과 함께 흘린 땀의 소중함을 느낀 순간 조중사의 아내인 내가 자랑스러웠다. 이동 중에 들리는 군인들의 힘찬 군가소리에서 수해 전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군인아저씨들의 힘찬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20전투비행단에서의 49일

KBS 환경스페셜 프로듀서 박 흥 영

지평선이 탁트인 전망,
 그리고 육중한 전투기의 이착륙음과 적당한 긴장.
 게다가 우리가 찾는 고라니와 철새, 부엉이 등
 한눈에 봐도
 보기 힘든 생태계를 갖춘 보물단지였다.
 새들과 전쟁을 하면서도
 울타리안의 동물을 보호해
 군비행장만의 독특한 생태를 간직한 전투비행단의 모습.
 20비는 나의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잖아요. 지금 시작해 보세요.” 지난 2월초 국방부 앞 어느 음식점에서 만난 국방부 정훈공보관실 기획홍보 관계자는 답답하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말했다. 공군 전투비행단을 찍을 수 있겠느냐는 나의 의문 섞인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그래도 우리 프로는 오래 찍어야 하는데...” 돌아 나오면서도 난 여전히 미심쩍었다. 얼마 뒤 공군본부 문화홍보과로부터 전화가 왔다. 촬영조건에 맞는 비행단이 몇 있는데 직접 가보고 나서 정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의였다. 그렇게 해서 찾아간 곳이 20전투비행단이었다.

2월 25일 아침부터 20전투비행단의 식구들과 같은 일과가 시작됐다. 6시 기상, 7시 아침식사, 8시 일과시작. 평상시 7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일어나던 나로서는 아침이 조금 버겁기는 해도 시원한 공기와 아침의 분주함이 나름대로 사람을 부지런하게 해준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첫날을 맞았다. 새들과 전쟁을 하면서도 울타리안의 동물을 보호해 군비행장만의 독특한 생태를 간직한 전투비행단의 모습. 20비는 나의 기대를 버리

지 않았다. 오전에 펜스안을 뛰어다니는 고라니를 바로 눈앞에서 찍는 행운을 잡았으니까. 옆에 있던 20비 정훈실장은 별거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지만 카메라를 잡은 김관수 선배의 표정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상기되어 있었다. 20비에서의 첫 촬영은 이렇듯 우리 스태프 모두에게 좋은 예감을 가져다 주었다. 오랜 촬영을 다니다 생긴 나름대로의 점괘를 보면 첫날의 ‘끝발’이 마지막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우리쪽 ‘밥그릇’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기에 앞으로도 좋은 장면을 많이 잡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다. 3시간 후의 엄청난 일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점심을 일찍 먹고 우리는 펜스를 배경으로 새를 찍고 있었다. 그때 오른쪽으로 비행기의 이륙음이 길게 이어졌다. 비행기와 새떼를 한샷에 들어오게 찍어 달라는 내 주문에 김선배는 비행기가 너무 빠르고 멀다고 투덜대고 있었다. 그때 다른 비행기의 이륙음이 들렸다. 무심코 돌아본 비행기는 막 활주로를 벗어나려는 순간이었다. 꼬리에 유난히 큰 불덩이를 끌고 달리고 있었다.

그걸 보고도 '원래 이륙할 땐 다 저런가보다' 라고 생각했다. 전투기의 이륙을 그렇게 가까이서 본적이 없으니까 말이다.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 누가 "사고다!"라고 소리쳤고 동시에 카메라가 방향을 돌려 전투기를 쫓았다. 나는 1초, 1초가 그렇게 길고 참기 힘든 시간이란 걸 처음 알았다. 꼬리의 불덩이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곧 비행기가 터질 것 같았다. '조종사는 왜 탈출을 안하나.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입이 마르고 머리털이 곤두서는 걸 느꼈다. "뒤편, 저런 x가 다있어, 뭐하는 거야!" 참다 못해 욕이 튀어나가는 순간 조종사가 튀어나왔다. 멀리서 조종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나는 어이가 없었다. 조종사는 낙하산을 침착하게 챙기고 있었고 "괜찮냐"고 물어보는 우리에게 "비행기가 추락한 지점에 가야겠다"고 했다. 응급차를 타고 사고지점으로 가는 조종사를 뒤로하고 나는 부대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경험을 하고도 이렇게 침착한 저 조종사는 괴물이 분명하다'고.

조종사를 만나고 부대로 돌아오며 우리 스태프들은 회의를 했다. '오늘 우리는 큰 거 한 건 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모른 척 하고 부대를 나가면 우리를 초대해준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리고 급박하게 30여 분이 지났다. 역시 우리 공군은 달랐다. 그림을 확인하고 방송을 허락하

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날 저녁, 7시뉴스를 시작으로 9시뉴스에도 톱뉴스로 방송됐다. 사고 보다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조종사의 살신성인 정신에 KBS 홈페이지에는 공군에 신뢰를 보내는 국민들의 글이 쇄도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후 우리 촬영팀은 비행이 중단된 비행장 곳곳을 다니며 촬영을 했다. 활주로변에 집을 지은 종달새부터 활주로를 뛰어다니는 고라니 등 촬영을 하는 김관수 선배가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찍는 게 너무 아쉽다고 말할 정도로 부대내의 생태는 생생하고 싱싱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부대와 부대내의 동물들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방송 후 리액션은 방송국에서 먼저 왔다. 울타리안에 그런 생태가 있는지 물렸다고. 왜 우리가 이제야 방송을 하게 됐냐고. 나는 대답대신 웃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군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생각한 바를 실천에 옮겨 보라. 부대내에 보물이 숨겨져 있거늘...

총 49일의 촬영,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온 부대를 설쳐대고 다닌 우리 촬영팀들을 이해하고 격려해준 20비 식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활주로를 이륙하는 전투기를 바라볼 때의 가슴 시원함과 뿌듯함을 잊지 못합니다. 공군 파이팅! 🇰🇷



멋진 공군장병 여러분, 술 한 잔 합시다!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 열린게시판 김 건 수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방방곡곡 상처를 받았습
니다. 며칠째 벼세우기를 하시는 부모님을 바라
볼 때면 사회생활로 도와드리지 못함을 가슴 아
프게 느끼던 차였습니다.

딩딩딩 전화 벨 소리. 공군장병들이 나와 벼를

세우고 있다며 음료수라도 사오라는 아버님의
전화였습니다. 너무도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가
보니 대민지원을 나온 공군장병들이었습니다. 현
병대대 소속 장병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밤근무는 안했는지? 그 중에는 자기 고향집도
피해가 많다는 병사도 있었습니다. 하루종일 자기
집 일처럼 벼를 세우던 그들이 고맙습니다. 며칠
전 자대배치를 받았다는 이병의 모습도 아롱거립
니다.

당신들이 세운 벼가 수확될 때쯤 휴가 받아서
꼭 한번 오세요. 시원한 막걸리 한 잔하면서 고
마움을 전하겠습니다.

군생활 열심히 하시고 제3훈련비행단의 발전과
현병대대 장병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멋진 군생
활이 되길 빌어 봅니다. ☺

잊을 수 없는 경험, Air Power Day 2002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기계공학부 신 광 수

기다리고 기다리던 <Air Power Day 2002>의
날이 드디어 오고 말았다. 비록 에어쇼가 아닌
말 그대로 '기지개방행사' 였지만 공군기지를 방
문할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로도 큰 영광이요 기
쁨이었다.

전시장에 들어섰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KC-135 공중급유기였다. 그 거대한 형상을 보는 순간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늘 사진에서만 봐오던 거대한 기체는 행사장 가장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설레는 마음을 채워주기에 적격이었다.

급유기의 거대한 기체를 뒤로하고 한 대의 복좌전투기가 있는 쪽으로 달려갔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공군의 최신예 주력전투기 KF-16D였다. 그동안 제공호와 팬텀, A-37은 몇 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F-16을 이렇게 직접 가까이서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기존의 우리 공군기보다 한 세대 진화한 '팰콘'은 작은 덩치와는 반대로 당당한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나를 사로잡았다. F-15K가 힘과 체력을 바탕으로 하는 씨름이라면 KF-16은 힘보다는 날렵함과 유연함으로 상대에게 타격을 입히는 우리의 '택전'과 같은 이미지를 주었다. 기체주위를 꼼꼼히 살펴본 뒤, 직접 팰콘을 몰고 오셨다는 조종사분께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마구 물어보았는데 공중기동에서 착륙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 다음은 팬텀. 역시 팬텀은 그 세월에 걸맞게 꼭 무게를 잡고 있었다. 팬텀의 전방석 탑승

으로 난생 처음으로 전투기 조종석에 앉아 볼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팬텀의 외형을 둘러보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제공호를 둘러 볼 때는 하사분께서 시동 방법과 러더, 브레이크 페달 사용법 등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려주셨다.

대한민국 공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전투기들을 둘러보고 난 후 그 꽃을 피우기 위한 '비료'인 국산훈련기 KT-1을 보게 되었다. 깔끔한 도장과 아직 새 기체라 그런지 어딘가 모르게 상큼함이 물씬 풍겨, 대한민국 공군의 자주국방의지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미 공군의 A-10 선더볼트, EA-6B 프라울러, F/A-18 호넷, U-2, 그리고 F-15A 이글까지, 9시간 동안의 관람을 끝낸 후 무심코 거울에 비쳐본 얼굴은 마치 낫술이라도 먹은 것처럼 새빨개져 있었다. 설령 하늘에서 내려 쬐는 햇빛으로 인해 새까맣게 되었다 하여도 하늘과 함께라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철통같은 대한민국 영공방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공군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대한민국 공군 파이팅! 🇰🇷



물을 물로 보지마!

- 21세기의 물전쟁 -

공군본부 환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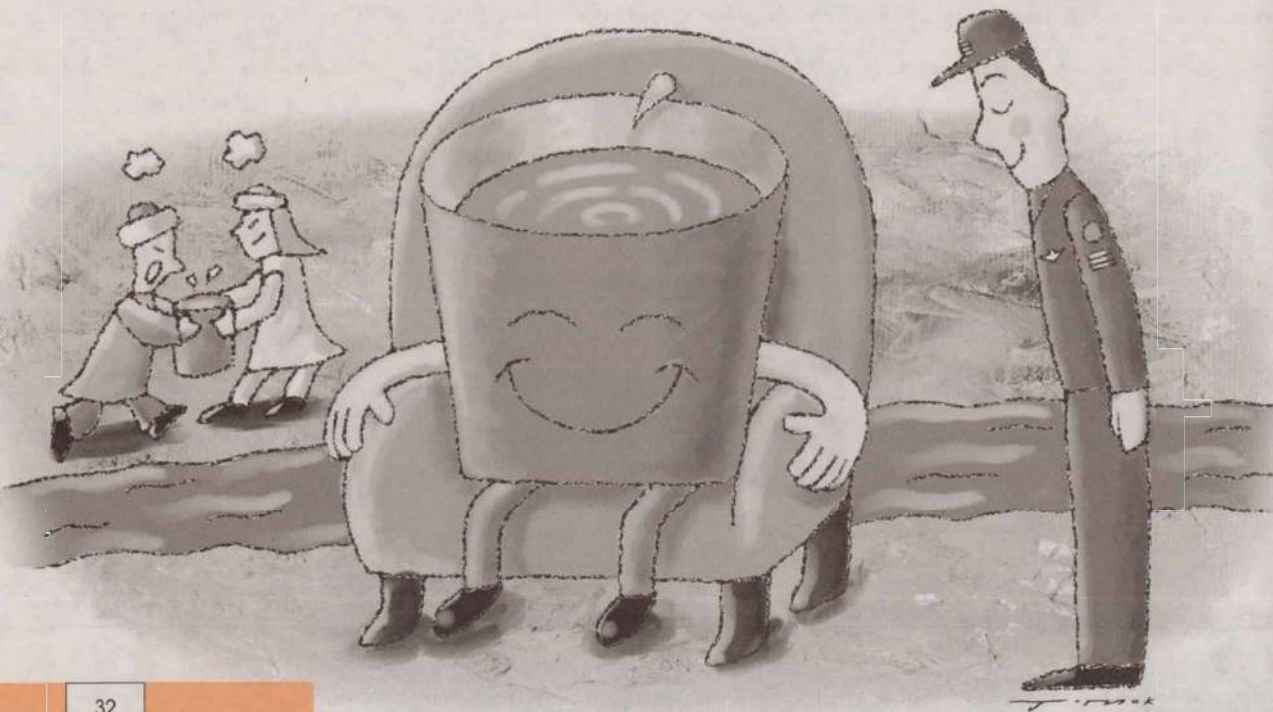
지구촌의 물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국제적 물꼬싸움이 시작된 지도 오래이며 이는 점점 더 험악해질 전망이다.

'20세기의 국제간 분쟁원인이 석유에 있다면 21세기는 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말처럼 불어나는 인구와 산업화에 따라 물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 관개지역은 줄어드는 형편이다. 그래서 수자원의 확보는 세계 모든 나라의 커다란 과제로 되고 있다.

물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은 두 나라 이상의 영토를 흐르는 강을 놓고 생각할 때 금방 이해가 갈 것이다. 그 같은 강이 세계에는 214개나 된다.

그런 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요르단-레바논-시리아 등을 흐르는 요르단강이다. 1967년의 6일 전쟁은 이스라엘과 회교국들 사이의 정치적 갈등과 함께 물문제까지 맞물린 싸움이었다. 그밖에 시리아-이라크-터키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두고, 수단-이집트-우간다는 나일강을 두고, 인도-방글라데시는 갠지스강을 두고 물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자치협상도 수자원 배분의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그런 싸움에 휘말릴 일은 없다 할지라도 물부족의 어려움만은 겪게 되어 있다. '물'을 위해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



누추한들 어떠리오?

제1전투비행단 중령 이 면 우

누추(陋醜)하다고 하는 말의 어원은 논어 '자한편(子罕篇)'에 보인다. 공자가 노년에 동방의 구이(九夷 : 우리나라)에서 살고자 하는 뜻을 제자에게 말하자 제자가 말하기를 “그곳은 거처하기에 누추할 것인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였다. 이에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가 거처한다면 무슨 누추함이 있겠는가?(子曰 君子居之면 何陋之有)”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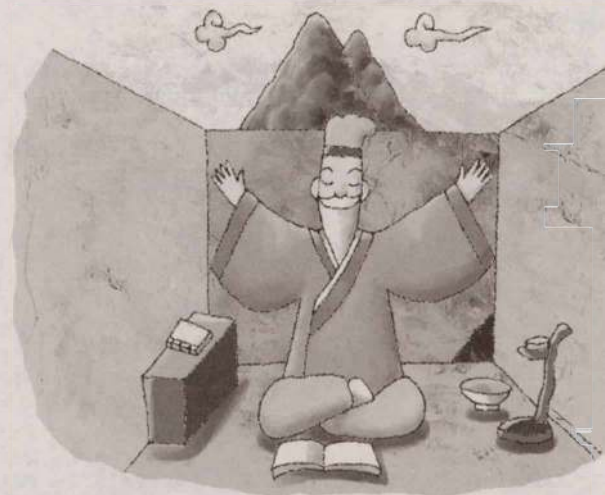
공자와 그의 제자의 대화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다운 성품과 성현으로서의 삶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고대광실(高臺廣室)인들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한 평 남짓한 움막이라도 분수에 맞게 자족하며(安分知足) 지혜롭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유명한 출사표(出師表)의 제갈량도 여막(廬幕)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를 키우며 우거(寓居)하였고, 마침내 촉한의 유비가 삼고초려하므로 천하를 제패하는 영웅의 반열에 서게 되지 않았던가? 한편 당나라 때 천하의 문장가로 이름을 떨친 유우석은 누실명(陋室銘)이라는 명문을 지어 군자로서의 삶을 노래하였는데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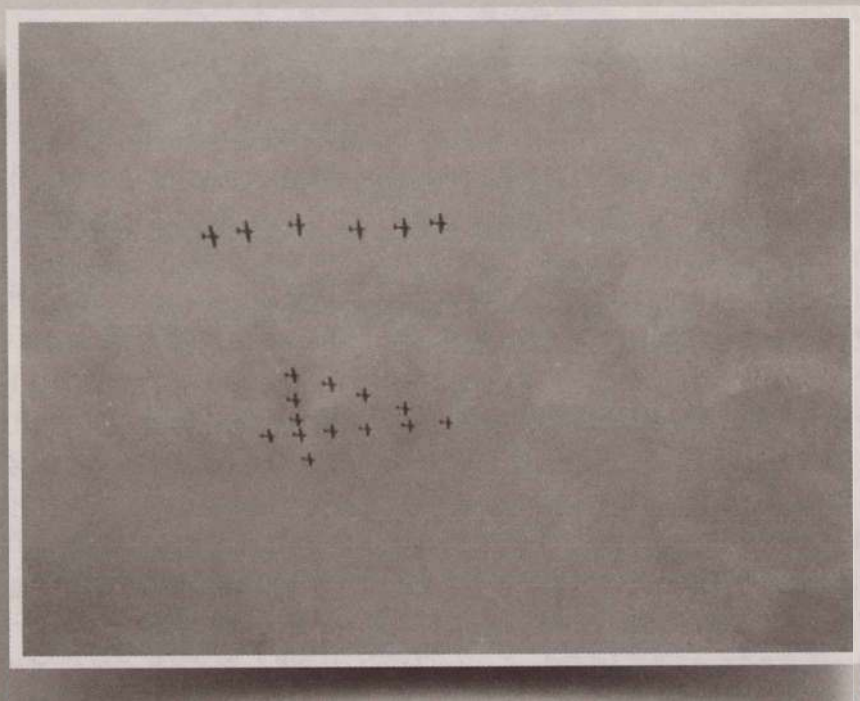
“산이 높다고 해서 다 명산이 아니다. 도를 통한 신선이 살고 있어야 명산이라 할 수 있다. 물이 깊다고 해서 신령스러운 것이 아니다. 승천을 꿈꾸는 용이 살고 있어야 신령한 물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이 비록 누추한 방에 거처하더라도 덕망의 향기로우미 있어야 하며, 자연을 벗삼아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큰 선비가 있어야 한다. 비록

누추한 집일지언정 오고가는 사람 중에 비속한 사람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꾸밈없는 거문고를 연주하며 성인의 경전을 가까이 할 수 있으니 제갈량의 움막이나 양자운의 초라한 정자와 견줄 만하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거처함에 어찌 누추함이 있으리오?(원문은 생략)”

참으로 심금을 울리는 명문이다. 물질적인 욕심을 앞세우기보다는 마음을 수양하며 자연을 벗삼아 유유자적하는 고고한 선비의 삶이 그려진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한다.

뜻하지 않은 수마(水魔)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들이 지친 몸이라도 잠시 쉴 수 있는 곳이 빨리 마련되었으면 좋으련만. Ⓣ





제14주년 국군의 날 기념 Air Show(1962)

14
나는 보지 못한다.
내가 떠있는 공간
너와 나, 우리가 떠 있는 공간
우리가 만드는 몸짓을 보지 못한다.

14
우리가 만든 것은
14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스스로 의미가 되었다.

우리가
흘러가는 순간,
의미 역시 흘러지며,
우리가
활주로에 내려 앉는 순간
의미는
다시 떠오를 내일을
기다린다.

신화가 된 항공기를 찾아서

Flying Legends Airshow



Runway 전경

사진 · 항공기 사진작가 김 태 협

www.aircraftphoto.co.kr

영국 런던 동북쪽, 기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케임브리지 근방의 Imperial War Museum Duxford는 복원 전시 비행을 하는 세계최고의 박물관으로 매년 수차례의 에어쇼를 열고 있다. 지난 7월에 개최된 <Flying Legends Airshow>는 매년 세계대전 당시의 전설적인 비행을 보여주는 에어쇼로, 올해에는 미국의 각종 군용기를 전시한 American Air Museum, 육상 군용장비 등을 디오라마 형식으로 전시한 Land Warfare, 복원/전시를 하는 5개의 Hangar, AirShop 등으로 구성되어 개최되었다.

그럼, 이제는 신화가 된 전장의 하늘로 날아가 보자.



Hawker Hurricane II



F4U Corsair



Hawker Hurricane XII Z7381



P-51D Mustang 44-14419

North American B-25J Mitchell 232511





Spitfire XVI TD248



Hawker Hurricane XII Z7381



North American B-25J Mitchell 232511



Yakovlev Yak-3



Lancaster



P-40E Kittyhawk NZ3009(앞), F4U Corsair(뒤)



F4U Corsair(앞), P-40E Kittyhawk NZ3009(뒤)



P-51D Mustang 44-13704(앞), F4U Corsair(뒤)



Spitfire XVI TD248



Spitfire VB BM597



B-17G-85-VE Flying Fortress 44-8846



Spitfire MT928



Grumman FM2 Wildcat(뒤), Grumman F8F-2P Bearcat(앞)



Lancaster & Hurricane

비행시뮬레이션 게임 이야기

F-16 Falcon(2)

프로그래머 · 게임평론가 (artmap@namo.co.kr) 최 세 영

척 예거의 어드밴스드 플라이트 트레이너(Chuck Yeager's Advanced Flight Trainer)(1988, 일렉트로닉 아츠)

오늘까지도 가장 규모가 큰 게임 회사 중 하나인 일렉트로닉 아츠(Electronic Arts)사에서는 1988년에 <Chuck Yeager's Advanced Flight Trainer>를 발표한다. 이 게임 역시 애플용으로 제작이 되었고, <Flight Simulator>시리즈처럼 전투의 요소는 배제된 채 순수한 비행기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병에서 장군까지 오른 미국의 영웅 척 예거 장군이 비행교관이 되어, 플레이어는 기초부터 곡예에 이르는 기술을 단계적으로 습득하게 된다. 척 예거 장군이 시험비행했던 X-1을 비롯하여 SR-71, P-51, F-18 등의 다양한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데, 이 중 하나가 F-16이다. 이 게임은 후에 IBM용으로 제작되었다. 1991년에는 IBM용으로 그 후속편격인 <척 예거의 공중전(Chuck Yeager's Air Combat)>이 발표된다. 여기에는 전투비행이라는 요소가 가미되어 굉장한 인기를 끌게 된다. 그러나 2차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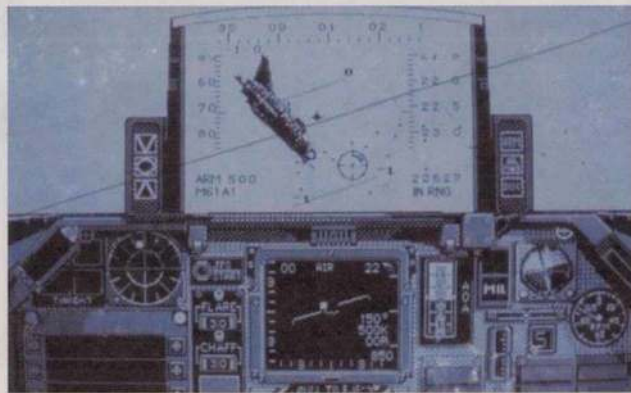
과 한국전, 월남전이 그 배경이라서 F-16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일렉트로닉 아츠사는 이 시리즈로 비행시뮬레이션 게임분야에서 중요한 제작사가 되며, 마이크로프로즈사와는 그 후로도 계속하여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다.

팔콘(Falcon)(1987~1998, 스펙트럼 홀로바이츠/마이크로프로즈)

세월은 흘러 8비트 컴퓨터 시대가 막을 내리기 시작하고, 16비트인 IBM PC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게임들도 급격하게 IBM PC를 플랫폼으로 하여 개발이 된다. <Falcon>시리즈는 이때 가장 화려하게 주목받은 비행시뮬레이션 게임이다. 그리고 <Falcon>시리즈는 영원한 걸작이 된다. 아마도 최고의 비행시뮬레이션 게임을 꼽으라면 <Flight Simulator>시리즈와 함께 <Falcon>시리즈가 거론될 것이다. 최초의 <Falcon>은 스펙트럼 홀로바이츠(Spectrum Holobytes)사에서 1987년에 제작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88년에 2.0에 해당하는 <Falcon AT>가 발표된다. 이 시기의



Chuck Yeager's Air Combat



Falcon AT



Falcon 3.0

〈Falcon〉은 모뎀플레이를 선보인다. 멀티플레이가 시작된 것이다. 모뎀플레이는 다른 장르의 게임에서 이미 시도된 바 있어서 아주 새로운 개념은 아니었으나 비행시뮬레이션에서는 각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이전까지의 게임에서 공중전 양상은 단독으로 한두 대의 적기를 여러 번 상대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동시에 세 대 이상의 적기와 만나는 상황이 드물었다. 당시의 컴퓨터 계산능력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한 화면에서 새로운 적기가 추가될 때마다 모든 계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배가되어 속도가 느려지는데, 당시의 컴퓨터 성능은 이를 뒷받침할 수가 없었다. 열렬한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공중전이 너무 쉽다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다. 〈Falcon〉의 모뎀플레이는 컴퓨터에 연결된 전화선을 통해 인공지능이 아닌 실제 사람과 1대1의 공중전을 벌일 수 있게 해주었다. 1,200bps라는 열악한 속도에도 불구하고 〈Falcon〉의 모뎀플레이는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상상만으로도 즐거웠던 일이 비로소 현실이 된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여러 면에서 당시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진보했다. 마이크로프로즈사의 〈유러피언 에어워(European Air War)〉에서는 한 화면에 256대의 기체가 동시에 표현되고, 거의 모든 게임에서 편대기가 표현되며, 편대기에 암호나 공격금지과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더욱 빨라진 네트워크로 1대1의 전투는 물론



Falcon 3.0의 Cockpit

여러 대의 전투기가 편대를 조직해 공중전을 벌일 수도 있다. 비행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게임의 다른 분야에서도 네트워크는 중요한 화제이다. 우리나라의 게임방 문화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스타크래프트(Starcraft)〉는 바로 네트워크의 힘이라 할 만하다.

1991년의 〈Falcon 3.0〉은 또 하나의 혁명이었다. 앞서 언급했던 〈Chuck Yeager's Air Combat〉과 같은 해에 발표돼 여러모로 비교되었다. 386전용 모드를 사용해서 당시의 컴퓨터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했고, 비행과 전투 양면에서 사실성을 강조했으며, 동적 캠페인 모드 등으로 최고의 시뮬레이션이라는 찬사를 받게 된다.

1998년 〈Falcon〉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한다. 〈Falcon 4.0〉이 발표된 것이다. 찬사를 받았던 이전의 〈Falcon〉은 한낱 예고편이 돼버렸다. 5년 여의 제작기간과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됐고, 패키지에 포함된 매뉴얼은 600페이지에 가까워 웬만한 소설책보다도 두껍다. 이제는 더 이상 게임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Falcon 4.0〉의 동적 캠페인은 더욱 발전되었다. 동적 캠페인은 미리 정의된 시나리오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정적 캠페인과 달리 게임이 진행되면서 전쟁 양상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특히 〈Falcon 4.0〉에서는 플레이어가 공중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지상군도 자체 시뮬레이터에 의해 전쟁을

하면서 그 결과가 반영이 된다. 물론 게임의 전개 양상이 변화될 수 있다. 한편 <Falcon 4.0>의 키보드 설명서를 보면, 모든 키가 다 이용되고, 거기에 Shift나 Alt, Ctrl키의 조합도 절반이 넘게 할당되어 있다. 수십 가지의 조작과 명령이 재현되어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게임을 해보기도 전에 질려 버릴 정도다. 그러나 그만큼 사실성을 강조한 결과다.

<Falcon>을 특징짓는 개념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사실성이다. 비행시뮬레이션 게임은 장르가 갖는 숙명적인 특징 때문에 사실성과 게임의 재미라는 두 가지 요소를 잡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요소가 상호 배타적이어서 어느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나머지 하나가 희생되어야 한다. <Falcon>은 전통적으로 최고의 사실성을 추구해 왔다. 비행이라는 항공역학의 재현뿐 아니라 전투시스템의 사실성, 전자장비 재현이나 기상 혹은 적기의 전술 재현 등 모든 면에서 말이다. 실제로 미 공군은 저가의 F-16 시뮬레이터(Simulator)를 개발하기 위해 스펙트럼 홀로바이츠사와 일한 적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혹평이 나오기도 했고, 냉혹한 시장논리와도 어긋났다. 결국 <Falcon 4.0>은 이미 영원한 명작이 되었지만 엄청난 개발비 부담과 판매저조 등의 이유로 개발팀이 해체된다. 그렇지만 개발팀은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5.0을 제작한다고 하니 <Falcon 4.0>마저 <Falcon 5.0>의 예고편으로 전락할지(?) 지켜볼 일이다.

<Falcon 4.0>은 우리나라 공군과도 인연이 깊다. <Falcon 4.0>은 한반도를 배경으로 다루며, 실제 북한지역의 목표물에 대해 폭격을 가하는 임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주한 미군의 공군기지 등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분단현실로 말미암아 이 같은 묘사는 게임계에서 일종의 금기로 되어있고 이런 이유로 등급 보류 결정을 받아 수입이 금지된 바 있다. 그런데 우리 공군에서 이를 조종사 능력향상에 도움

이 된다는 판단하에 게임이 아닌 '훈련용 장비'로 수입하였다. 그 후에 공군의 <Falcon 4.0> 채택과 남북화해 분위기 등이 맞물리면서 <Falcon 4.0>이 정식으로 수입되었으며, 공군참모총장배 비행시뮬레이션 게임대회에서는 <Flight Simulator>와 <Falcon 4.0>이 채택되어 있다.⊕



Falcon 4.0

로맨틱 코미디와 조폭 영화의 결혼

〈가문의 영광〉

영화평론가 김지훈



〈패밀리〉, 〈보스상륙작전〉 등으로 '9월 대공세'를 감행한 2002년 조폭 영화의 선봉에 선 〈가문의 영광〉에는 조직간의 암투나 장쾌한 액션, 남자들 간의 끈끈한 의리는 눈에 띄지 않는다. 대신 태원 엔터테인먼트와 시네마 서비스라는 영화산업계의 원투펀치는 로맨틱 코미디와 조폭 영화의 결혼을 주선하여 '홍행의 영광'을 구가하려 한다. '결혼시키느냐, 못하느냐'라는 피차 사생결단의 상황을 남녀상열지사 포복절도로 포장한 이 작전은 일단 성공적으로 보인다. 조폭 영화는 2000년대 최고의 문화상품이며, '막내딸 시집보내기' 이야기는 이 땅의 관객들에게 친숙한 소재거리다. 이러한 전통과 현대의 동거관계는 서울-지방, 인텔리-조폭, 표준어-사투리 등 영화에서 다양한 대립을 불러모은다. 코미디의 기본 원칙인 '상황들의 충돌'에 충실함으로써 인물들이 코미디의 활력을 얻는다.

이 활력의 핵심에는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능숙하게 살린 캐스팅이 크게 한몫하고 있다. 김정은은 사실상 〈가문의 영광〉 족보의 중심이다. 〈재밌는 영화〉에서 장면에 따른 감정변화를 능수능란하게 표현했던 그녀는, "그러, 우리 집안 깡패여. 위쩔 것이여!"라는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내뱉는 장진경으로 리모컨 버튼 누르듯 변신한다. 김정은이 브라운관 이미지를 그대로 살렸다면 이를 비트는 역은 '집안의 장남답게' 유동근이 앞장선다. 최근 몇 년간 많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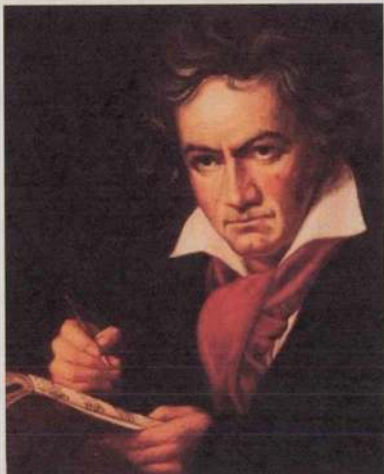
견배우들이 시트콤에서 기꺼이 망가짐의 전철을 밟았더라도, 얼굴부터 왕의 후광이 넘치는 그가 영화 내내 무식과 '무대뽕'로 시종일관할 때 그 격은 다르게 느껴진다. 그러니 요즘 한창 잘 나가는 정준호의 코믹연기는 상대적으로 당연하게 보인다. 물론 그도 현대카드 CF의 잘생긴 중산층 스타일에 〈두사부일체〉에서 보여준 어눌하고 멍청한 연기를 가미함으로써 장씨 일가 사 람들과 유사한 재미를 선사한다.

그런데 이 재미를 가라앉히고 나면 조폭 영화를 둘러싼 불편함이 익숙하게 고개를 내민다. 조폭들이 코미디의 외피를 입었다는 것은 사회가 그들을 더 이상 제도권의 바깥으로 축출할 수 없음에 대한 자술서이기도 하다. 즉, 연예산업과 서비스산업으로 변신한 조폭 조직과, 코미디로 변주된 조폭 영화는 서로를 반영하는 거울 관계였다. 〈조폭 마누라〉 이후의 코미디가 조폭들이 학교와 가정, 종교라는 수직적 제도로 진입했을 때 웃음의 해프닝을 자극한 것처럼, 〈가문의 영광〉 또한 전근대적 가부장제와 '패밀리'를 하나로 가지치기한다. 따져보아야 할 것은 자수성가한 벤처기업가인 박대서가 조폭-제도 커넥션에 합류하는 시나리오인데 어딘지 모르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 IMF 이후 불안에 직면한 남자들, '고개숙인 남자들'이 폭력조직에 대해 가졌던 두려움과 승배의 이중적 심리가 여전히 화면 위에 떠돌고 있는 건 아닌지. ☘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비창 · 월광 · 열정

서울시 교향악단 양 창 섭

베토벤은 무려 32곡의 피아노 소나타를 남겼는데, 이 곡들을 통해서 그는 피아노포르테라는 악기의 발전에 동승하여, 피아노 음악을 한 차원 높은 곳으로 이끌고 갔다. 피아노에 풍부한 악상을 맘껏 실었던 베토벤은 '비창', '월광', '열정' 등 걸작들을 배출했는데, 마지막 세 곡의 소나타는 놓치기 아깝다.



다로 시작한다. 소나타 형식이라는 점을 빼면 1악장이라는 것을 알아채기 힘들다. 이러한 음들은 우리의 귀에 대고 조곤조곤 속삭이는 것 같다. 힘차게 시작하는 2악장은 2분짜리지만 베토벤에게 산술적인 시간의 균형은 의미가 없다. 마지막은 아다지오가 붙어 있는 푸가 악장인데, 마지막 아다지오에 이어지는 푸가는 난데없는 것이지만 신

작품번호 109 · 110 · 111, 세 작품은 자신이 만들어놓은 형식을 탈피하여 자유로우면서도 지극히 사색적이며, 지극히 아름다운 세계를 펼쳐 보이고 있다. 고전주의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자유분방하며, 낭만주의 작품에는 결여되어 있는 철학이 가득하다. 베토벤이 보여주는 세계가 여럿 있겠지만, 이 세 곡이야말로 베토벤의 진수요, 진경일 것이다.

성하기까지 하다. 베토벤은 인생의 마지막에 바로크로 돌아가면서 그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30번(작품 109)은 1, 2악장은 짧고 3악장은 긴 기형적(?)인 구조다. 첫 출발부터 베토벤답지 않게 소박한데, 이것은 곧 묵직하게 바뀌어진다. 쉽없이 이어지는 2악장은 힘이 넘치지만 깊이를 가지고 침잠한다. 이 곡의 하이라이트는 변주곡 형식의 3악장인데 베토벤은 이 악장의 서두에 “노래하듯이, 마음으로부터의 감동을 가지고”라고 적고 있다. 기품있는 멜로디는 소박하지만 눈물이 나올 만큼 순정하다. 품위를 잃지 않는 아름다움은 모차르트에게도, 슈만이나 쇼팽에게도 찾아보기 힘들다.

'Opus 111'이라는 음반회사가 있을 만큼 상징성을 가진 마지막 소나타는 2악장의 파격이다. 그러나 하나의 악장이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 전혀 다른 음악이기 때문이다. 앞의 두 곡이 힘을 빼고 담담하게 자신의 생각을 펼쳐놓는다면, 이 곡의 첫 악장은 혼신의 힘을 다해 말한다. 이것은 영웅적인 자기과시와는 거리가 멀다. 주제와 다섯 변주로 이루어진 마지막 악장은 변주를 통해서 정신의 고양을 추구한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듣는 이로 하여금 고양감을 맛보게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해낼 수 없었던 후기 베토벤만의 것이다.

앞의 두 곡은 에밀 길렐스(DG), 마지막 곡은 미켈란젤리(Decca)의 것이 출중하다. ㉠

두번째 소나타 역시 차분하고 아름다운 멜로

경주,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사는 곳

『능으로 가는 길』 / 강석경 지음 / 창작과비평사

KBS 국제부 기자 이진성

보름달이 흰한 추석날, 당직에 걸려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하릴없이 텔레비전과 책을 뒤적였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영화 '신라의 달밤'을 보면서 경주라는 도시에 대한 강석경 선생의 책에 다시 손이 갔다.

경주, 엄밀히 말해 경주역사유적지구는 2000년 11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됐다. 1995년 이미 불국사·석굴암이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됐으니 경주는 한 도시에 국제적인 문화유산만 둘이 지정된 국제적인 문화특구로서의 위용을 자랑하게 됐다.

하지만 경주는 경부고속철도의 유치와 경마장 건설 등의 문제로 계속 시끌시끌했다.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지 말아야 한다며 개발을 반기는 경주 사람들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외지인의 머릿속엔 자칫 개발열풍으로 지극껏 간직해온 문화도시로서의 면모가 훼손될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책의 머리말에 "선덕여왕의 꿈이 서린 황룡사 터에 서서도 재벌회사의 고층 아파트를 마주보아야"한다는 저자의 불멘소리가 맘에 걸려서 서설이 길어졌다.

서울 바닥에서 마주치는 게 사람의 물결이라면, 경주에선 언덕처럼 솟아오른 무덤들이 발길에 채인다. 시내 한 복판, 대릉원은 물론이고, 교외로 조금 발길을 옮겨도 보이는 고분들이 부지기수다. 일제치하부터 발굴되기 시작한 경주고분은 이미 해방 이전에 155기가 확인되었다. 참 몇 대가리 없게도 '00호 고분' 하는 식으로 번호를 단 무덤들은 출토된 문화재의 이름을 따 '천마총' '금관총' 등의 이름을 가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정작 그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드물다.

논쟁을 위해 씌어진 글이 아님에도 저자는 굳이 잘못 알려진 왕릉에 대해 꼼꼼히 문헌을 훑으며 문제제기를 서슴지 않는다. '외지인이 감히'라는 시뻐거리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글을 따라가다 보면 저자는 십 년 가까운 세월을 경주에서 보내며 이미 경주 반토박이가 다 되어 보인다.

'문명' '집착' '유목민의 꿈' '슬픔' 등 모두 열 한가지 주제 아래 여러 능을 돌아다니며 쓴 글에서 느껴지는 예술가의 섬세한 감성을 맛보는 것도, 글 속에 무르녹은 신라 역사의 정취를 잘근잘근 씹어보는 것도 좋지만 역사가 숨쉬는 산천은 발품을 팔며 직접 부딪혀야 제격이다. 당장에라도 경주에 가 보라. 사자(死者)가 안식처를 마련한 이름을 잃어버린 거대한 무덤 위엔 이름 모를 풀꽃들과 뿌리내린 나무들, 그 사이사이 소풍을 나온 가족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테니. 경주에서 무덤이란 산 자와 죽은 자를 가르는 경계의 공간이 아니라 함께 호흡하는 공존의 장임을 금세 알 수 있을 것이다.

소설가인 저자에게 외란된 이야기지만 필자는 그의 소설보다는 산문을 더 좋아한다. 당대의 예술가들의 생생한 육성을 기록한 『일하는 예술가들』(열화당)에서 엿본 바 있는 저자의 태도를 미뤄 보건대, 저자는 굳이 많은 질문을 던지지 않는 대신 상대방이 솔직하게 자신을 털어놓게 만들 줄 안다. 이 책 또한 예외가 아니다. 소리 죽여 자신을 숨기던 신라의 능들은 사려 깊은 인터뷰어 강씨의 마법에 걸려 자신의 지난 이력을 묻지 않아도 술술 풀어내고 있다.📍

다양한 삶의 현란함, 프랑스



파리의 명물인 에펠탑

프랑스를 다녀와서 컴퓨터 앞에 마주한 내가 처음 느낀 기분은 도무지 쓸게 마땅치 않다는 느낌이었다. 2주 남짓, 여행 스케줄에 쫓기며 주말 간산격으로 프랑스를 둘러본 내가 프랑스를 이야기한다는 사실이 억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다른 나라를 그 정도 여행했으면 웬만큼은 쓸 것이 있었다고 그냥 넘어갔었을 내가 유독 프랑스란 나라를 이야기하자니 별로 쓸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실상 프랑스란 나라가 너무나 볼 것이 많은 나라기 때문이다. 쓸게 너무 많아 차라리 쓸 수가 없을 만큼, 프랑스란 나라는 다양한 자연과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 고색 창연한 역사가 지금도 숨쉬고 있었다. 우선 파리만 하더라도 굳이 세계적인 문호 빅토르 위고의 말을 빌 것도 없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

글·사진 사진작가 김 석 종

는 느낌이 절로 든다. 유럽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이 꼭 들려야 할 도시로, 파리를 흔히 손꼽는 이유도 파리가 아름답기 때문일 것이다.

파리의 거리풍경을 살펴보자. 몇 백년은 족히 넘었을 건물들과 로마인들이 깔아 놓 돌바닥길들, 몇 대에 걸쳐 운영하고 있는 노천카페 등이 눈길을 끈다. 현대식 빌딩을 진보의 상징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그래서 파리를 우중충하다고 느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파리지엔느(파리 사람들)들은 오히려 오래된 집에서 골동품과 같은 낡은 가구를 지니고 사는 것을 생활의 멋으로 알고 있다. 고조 할아버지가 쓰던 스토브에 나무를 넣고 지피면서 추운 겨울을 나는 낭만을 만끽하는 이들은 또한 예술을 생활 속에서 응용하면서 산다. 파리의 주택들이나 상점의 창을 유심히 살펴보자. 어느 하나 똑 같은 것이 없다. 커튼의 색깔과 문양, 창틀의 색깔, 창가에 놓인 제라늄꽃 화분의 색깔도 제각각이다. 그래서 개성과 예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프랑스인들이 세계 3대 박물관의 하나인 루브르 박물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당연한 귀결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를 비롯, 미로의 비너스, 마네, 모네, 고흐의 그림 등 세계적인 걸작품 30만점을 소장하고 있는 루브르 박물관은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을 적절히 혼합해 예술세계로의 자연스런 몰입을 가능케 해준다.

파리에 가면 꼭 에펠탑에 오르도록 하자. 높이 320미터의 철구조물인 에펠탑은 개선문과 더불어 파리를 특징짓는 상징물이다. 몇 번에 걸친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에 올라 파리 시내를 내려



프랑스 왕실의 영광이었던 베르사이유 궁전의 정원

다보면 가깝게 세느강이 흐르고 그 위를 유람선들이 한가롭게 오가는 모습과, 방사선식으로 형성된 도로망과 고색창연한 건물들이 뽀뽀히 들어 차 있는 파리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중세건축의 대표적 건물인 노트르담 사원과 파리의 32개 다리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또 영화 '퐁네프의 다리' (실상은 뱀에 다리를 단 것 같은 표현이다. 왜냐하면 퐁-Pont의 뜻이 다리라는 뜻이기 때문)의 배경이 되었던 16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퐁네프만 보더라도 프랑스인들이 얼마나 옛것을 사랑하고 보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는가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 밖에 몽마르트 언덕과 몽파르나스의 예술인 거리를 거닐며 노천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나가는 풍경들만 보아도 그대는 이미 파리의 진수를 조금은 맛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필자는 파리에서 가장 편한 느낌을 가졌던 장소들 중 하나인 단연 뒤흘상부르 공원(Jardin du Luxembourg)을 손꼽고 싶다. 몽파르나스 지하철역에서 지척거리에 있는 이 공원은 마로니에 가로수가 시원하게 뻗어 있고 분수 주위에서 쉬며 공부하며 사랑을 속삭이는 학생들의 한가로운 모습이 여행객들을 부럽게 만드는 곳이다. 아무런 속박도 없이 자연스럽게 청춘남녀들이 그냥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이

곳은 도심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다.

파리의 밤을 멋지게 보내려면 유람선을 타보자. 저녁에 떠나는 유람선은 세느강을 미끄러져

몽마르트 언덕에 가면 즉석에서 그림을 그려주는 화가들을 만날 수 있다.





프랑스에 가면 어느 도시에서든 노천 카페를 볼 수 있다.

파리의 야경과 불 밝힌 에펠탑의 낭만적인 모습을 그대 앞에 펼쳐 보일 것이다. 저녁을 성찬으로 차려 먹고 진한 에스프레소 커피로 입가심을 한 다음 취향에 따라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이나, 리도(Lido)쇼를 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의 정명훈 씨가 지휘자로 있었던 바스티유 오페라에서는 오페라뿐만 아니라 클래식 콘서트도 즐길 수 있다. 이미 그대는 식사를 하였으므로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리도쇼장으로가 밤 10시나 밤 12시의 리도쇼를 보도록 하자. 물론 이 곳에서 식사도 할 수 있으며 저녁을 곁들인 쇼는 저녁 8시에 시작한다. 단 예약은 필수. 이 밖에도 파리는 여러 미술관과 광장, 풍피두 센터, 쇼핑거리인 샹젤리제 등 볼거리가 많아 파리를 제대로 보려면 최소한 3일 정도는 할애해야 할 것이다. 파리만 제대로 보아도 프랑스의 반은 본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파리에는 삶의 다양한 모습이 현기증 날 정도로 현란하다.

파리를 떠나 버스를 타고 남부 지방의 휴양도시 니스로 떠난다. 차창으로 흘러가는 프랑스 시골의 풍경은 노란 유채꽃밭과 푸른 밀밭의 연속이다. 유럽 제일의 농업국답게 프랑스의 밭들은 끝이 없

이 뻗어 있다. 니스(Nice)-여름보다는 겨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프랑스의 지중해 연변 도시에 가면 햇빛의 강렬함과 비치에 젖가슴을 드러낸 채 일광욕을 즐기는 여인들의 모습에 조금은 놀라게 된다. 햇빛을 받으며 누가 보든 말든 젖가슴에 비타민 D를 흡수시키며 입가엔 가벼운 미소를 머금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은 프랑스인들의 개인주의와 개성주의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프랑스인들은 유럽 내

에서도 쌀쌀맞기로 유명하다. 특히 외국 관광객들에게 보이는 냉정함에는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쿨대가 세고 좀 이기적인 느낌까지 준다. 그러나 모든 프랑스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시골에서 만난 어느 노파는 나를 집으로 데려가 자기 직접 담근 포도주를 따라 주며 서툰 영어로 자기 손자들의 사진을 설명 해주기도 했다. 그러므로 프랑스를 여행할 때는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기보다는 프랑스인들이 2천 여 년 동안 개인주의와 개성주의로 세워 놓은 독특한 문화적 풍미를 맛보고 느끼는데 신경을 쓰자. 그러다 보면 필자가 만났던 노파와 같은 인간미 넘치는 프랑스인도 만나게 될 것이다. ☺



세계 3대 미술관의 하나인 루브르 미술관



시리도록 청명한 시월에



73기상전대 중령 엄영경

태풍과 집중호우로 힘들고 지친 9월이 지나가고, 하늘 끝까지 보일 정도로 맑고 시리도록 청명(淸明)한 시월이다. 10월에는 이동성 고기압 후면으로 기압골이 통과하나 습기가 없어 총 강수량은 전달에 비해 100mm나 적은 55mm로 매우 건조한 날이 이어진다. 기온은 9℃~20℃로 기온 하강폭이 점차 커져 아침과 저녁으로는 쌀쌀함마저 느껴지며, 하순경부터는 기온이 급강하하여 남부 일부 지방을 제외한 전국에서 첫서리 및 첫얼음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을은 점점 더 깊어진다. 날씨가 맑아 야외활동하기에 적합한 시기이나, 기온이 낮아지면서 전열기 사용이 많아져 화재위험이 높아지고 일교차가 연중 최고치를 나타내 안전사고 및 건강관리에도 유의해야겠다. 그리고 일교차가 크고 대기는 안정해지면서 아침에 안개가 자주 발생하여 항공작전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 또한 대기오염과 안개가 합쳐진 농무(濃霧)로 인해 공중시정(visibility)이 극히 불량한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이 가끔은 야간까지 지속되면서 공중충돌 및 비행착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한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비행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올해는 환경파괴와 엘니뇨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기상이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10월에도 기상이변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고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절기로는 국화 향기가 그윽하고 비가 여물어 들판이 황금 물결로 출렁이고 찬이슬이 맺힌다는 한로(寒露)가 8일이며, 찬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이 23일이다.

10월은 “시월이라 가을이니 한로, 상강 절기이다. 제비는 돌아가고, 떼 기러기 언제 왔노, 벽궁에 우는 소리 찬이슬 재촉한다. 온 산의 단풍잎은 연지로 물들이고, 울 밭의 노란 국화 가을빛을 자랑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붉게 물든 단풍잎과 국화꽃 향기가 코에 아른거리는 계절이다. 한로가 되니 비이삭 소리 슬슬 서걱이고 곡식과 과일이 결실을 맺는 때, 북에서부터 남으로 내려오는 벼들의 황금빛 물결에 맞추어 벼 베기가 시작된다. 또한, 상강이 되면 보리파종(rye sowing)의 적기이다. 가을추수가 끝나기 무섭게 이모작(secondary sowing)인 남부지방에서는 보리파종에 들어가 또 한번의 풍요로움을 기대하게 된다.

깊어 가는 가을만큼 울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음이 아쉬워진다. 그러나 결실의 계절 시월에 계획했던 일들에 대해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면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 해 후회 없는 2002년을 만들어야 하겠다. Ⓣ



술, 확실히 취하자?

제17전투비행단 법무실장 대위 이 승 철

이제 곧 완전한 가을로 접어들면 단풍놀이나 각종 체육대회에 이르기까지 술자리를 가질 기회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술이란 게 참 묘해서 이를 적당히 마시면 뽀뽀한 일상에 청량제가 될 수 있고,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해주는 묘약이 되기도 하지만 자칫 과하게 되면 모든 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회한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벌하고 강조를 해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음주운전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내에서 오랜만에 저녁식사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정상출근이 아니라 조기출근을 해야 되는 관계로 술은 마시지 않고 밤만 먹고 오려고 차를 가지고 모임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경험상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자꾸 술을 강권하게 되고, 그럼 잔만 받아놓을 게 하면서 잔만 받아놓고 건배만 맞추어주다가 결국은 1, 2잔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조금씩 입에 되고, 술을 안 마시겠다는 생각은 결국 '몇 잔만 마시고 술 좀 깨고 가지, 뭐' 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더 마시게 되고, 2차로 호프집이나 노래방에 가서 두어 시간쯤 있습니다. 이때 맥주 1잔 정도 더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나마(--;) 강한 의지(?)로 술을 안 마시고 버티다가 모임을 파하게 됩니다.

소주를 좀 마셨지만 정신은 말짱하고, 술 마신

지도 두어 시간 정도 지난 것 같고, 차를 두고 가자니 택시를 타야되는데 관사가 있는 부대 후문까지 할증요금 내고 택시 타야 되고, 내일 아침 출근할 때도 차가 없어 귀찮고, 내일 퇴근하고 나서 다시 택시를 타고 나가든 버스를 타고 나가든 시내에 나가 차를 다시 가져와야 되고... 정말 귀찮다는 생각이, 그리고 괜한 택시비만 이중삼중으로 든다는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합니다. 아울러 '술도 별로 안 마시고 다 깰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곤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파멸입니다. 절대로 스스로 음주수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술을 마시려면 확실히 취하도록 마십시오. 조금 마시고 술 좀 깨고 차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단, '취하도록' 마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술을 제어할 수 있을 만큼의 기분 좋은 상태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술자리엔 차를 안 가져가는 것이 첫 번째 잘 깨어야 할 단추이지만 설사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를 가지고 갔을 때에는 아예 술을 입에 대지 말고, 술을 입에 대었으면 차는 잊어버리고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술 마시고 대중교통 수단으로 귀가하십시오.

음주운전은 '내가 술 마시고 내가 사고나면 내가 다치거나 죽는데 뭘 문제냐'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런 잘못 없는 애꿎은 다른 차량이나 운전자 혹은 보행자를 치명적인 상황에 빠뜨릴 수 있는 큰 '범죄'임을 항상 자각해야 합니다.Ⓜ

독감 예방, 지금이 적기

제3방공포병여단 의무실장 대위 **홍 승 권**

추분도 지나고 서서히 찬바람이 부는 시기이다. 10월은 독감 예방접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다. 따라서 미리미리 대상자들은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감기와 독감은 증상이 비슷하여 구별하기가 힘들

다. 따라서 독감유사증상을 국가에서 스크리닝하고 있다. 독감이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하여 코, 목, 폐 등에 감염되는 전신성 질환으로 감기종류 중의 하나이다. 독성이 강하고 고열, 기침, 가래, 인후통, 두통, 근육이나 관절통 등 전신 증상이 심하며, 세계적인 대유행을 초래한다. 대부분 1~2주 정도 지속되고 더 심해 질 수도 있다. 매년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거나 합병증으로 입원을 하기도 한다.

독감 예방접종이란 최근에 유행했던 독감 바이러스를 처리해서 접종하는 것으로 몸에 항체를 형성하게 하며 이 항체는 우리 몸에 일정기간 존재하면서 진짜 독감 바이러스를 막아낸다. 항체 형성은 예방접종 후 한 달이 가장 왕성하다. 8세 이하의 어린이는 2차례 접종하며 그 이상의 어린이나 성인은 매년 가을(11월 이전) 1회의 근육주사로 충분하다. 독감 예방접종을 해도 100% 예방되지는 않지만, 70~90%의 예방효과가 있으며, 면역이 생겼다면 독감이 걸려도 면역이 없는 것보다 증세가 미비할 수 있고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심혈관계,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신장질환, 당뇨병, 화학요법을 받지 않는 암환자, 간장질환, 고위험군의 환자와 자주 접촉하는 의료 종사자들,

에이즈 바이러스 양성자, 정기

적으로 아스피린치료를 받는 소아, 청소년, 짧은 성인이다. 독감 예방접종은 안전하다. 그러나 6개월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지만 과민반응으로 발열, 발적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꼭 의사와 상의한 후 접종해야 한다. 현재 열이 있거나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초기 임신부들도 위험하므로 의사와 상의하고 접종해야 한다.

가장 좋은 독감 예방법은 손을 자주 씻는 것이다. 특히 외출 후에는 손발을 닦고 양치질을 해야 한다. 독감이 유행할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한다. 평소 충분한 수면 또는 숙면을 취하고,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영양섭취를 하여 기초체력을 강화한다. 요즘처럼 환절기나 일교차가 심한 때에는 춥지 않도록 아침과 저녁으로 옷에 신경 쓰고 잠자리도 주의한다. 실내 온도와 외부온도의 차이는 5℃를 넘지 않게 한다. 실내가 건조해지지 쉬운데, 환기를 자주 해야 한다. 사무실의 컴퓨터, 키보드, 전화기 등 먼지가 끼기 쉬운 곳을 자주 닦아주며, 목욕은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장시간 목욕은 삼가야 한다. Ⓛ

독립인물

고광순 (高光洵)



본관 장흥. 자는 서백(瑞伯), 호는 녹천(鹿泉). 전남 담양 출생. 임진왜란 때 금산 7백 의사의 지도자로 알려진 고경명의 둘째 아들인 고인후의 사손(祀孫).

1895년 일본이 대륙을 침범하고 국모를 시해하자, 통분을 참을 수 없어 의병을 일으켜 의병장으로 일본 침략에 항거하였다. 그 후 동북에서 왜적을 대파한 후 구례 연곡사를 본영으로 삼고 같은 일가인 고제량·고광수·고광훈 등과 함께 싸웠는데, 그때 군사로 참가한 자가 1천을 헤아렸다. 그러나 1907년 10월 11일 적의 기습을 만나 고광순을 비롯하여 고제량 등이 전사·순국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며 1447년(세종 29년) 문과증시에 급제, 부제학 등을 거쳐 1452년(문종 2년) 수양대군이 사은사로 명나라에 갈 때 수행하고 이듬해 부승지로 계유정난에 참여, 정난공신이 되었다. 세조가 즉위하자 그를 적극 보좌하여 좌익공신이 되어 고령군에 봉해졌다. 예종 즉위 후 남이를 숙청한 공으로 익대공신이 되었다. 뛰어난 학식과 문재로서 6대왕을 섬겼고, 『국조오례의』, 『동국정운』, 『국조보감』, 『세조실록』, 『영모록』 등을 찬수했다. 세종 때는 왕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은 학자였으나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에 가담한 점에서 후세에 비난을 받았다. 저서에 『보한재집』, 『북정록』, 『해동제국기』, 『사성통고』 등이 있다.

호국인물

라희봉 (羅熙俸)



경감 라희봉은 1949년 경찰에 임용되어 1951년 순창경찰서 쌍치지서장으로 근무중 의용대원 45명을 지휘, 쌍치면 국사봉, 금창골 등에서 승리하는 전과를 올렸다. 1951년 10월 20일, 쌍치면 용전리 뒷산 속칭 오두봉 고지에 적이 침투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한 라희봉 경감은 경찰부대를 직접 지휘하여 수색작전을 벌이던 중 적 항미연대 및 외팔이부대와 마주쳐 치열한 전투중 적이 던진 수류탄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중 전사하였다. 그 후 라희봉 경감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오두봉을 라희봉고지라고 부르고 해마다 추모행사를 지내고 있다.

문화인물

신숙주 (申叔舟)



자 범옹(泛翁), 호는 보한재(保閑齋)·희현당(希賢堂). 시호 문충(文忠). 1439년(세종 21년) 친시문과에 급제, 훈민정음 창제에 공을 세웠으

Shall we read?

나의 독서법(2)



머리말을 읽어라! / 제10전투비행단 병장 노승준

나는 책을 읽을 때 머리말을 제일 먼저 읽는다. 머리말에는 작가가 그 책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 책을 읽는 독자가 무엇을 느끼고 깨달았으면 하는지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담겨 있다. 따라서 본문을 읽기 전에 머리말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한다면 책의 내용이 훨씬 잘 들어올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나만의 독서법이 있다면 책을 읽는 도중이나 읽은 후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메모하는 것이다. 메모를 하면 나중에 메모한 것만 살펴보더라도 책의 내용을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책을 통해 얻은 정보나 교훈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스테디셀러를 선택하라! /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병장 지문환

첫 번째로, 책은 사서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가치가 솟아나는 책을 가지고 있노라면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 베스트셀러보다는 스테디셀러를 택한다. 한때 많이 팔렸다고 해서 그 책이 무조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시간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항상 감동을

주는 책을 읽어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세 번째로 책을 읽기에 앞서 개요와 목차를 자세히 살펴본다.

독서계획은 기본! / 작전사령부 일병 김유석

독서계획 세우기. 나는 일주일을 단위로 계획을 세운다. 그 이유는 군생활이 일주일을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 독서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어느 사이에 토요일밤이 되면 습관적으로 이번 주에 읽은 책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책은 스스로 선택하라! / 항공의료원 병장 박재연

책이라는 것은 지식을 쌓으면서 동시에 인격을 수양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따라서 타인의 선택이 아닌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책선택이 중요하다. 둘째로 책의 형식이나 저자의 명성에 얽매이지 말고 저자의 노력과 진실성에 초점을 맞춰 책을 읽는다. 만화책이나 잡지에 나오는 내용이라도 저자가 충실히 자료를 고증하고 나름대로의 관점과 풍부한 감동을 담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양서가 아닐까? 이외에도 책을 읽고 나서 다른 사람과 토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새롭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

고맙다, 내 친구 백왕

제16전투비행단 헌병대대 군견반 일병 윤영식



백왕과 나는 단순한 군견과 군견 취급받이기 이전에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친구이자
든든한 동반자인 것이다.
나는 그 누구보다 군견병으로서의 나의 일에 만족한다.
활주로 위로 서서히 떠오르는 해를 같이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라고 눈으로 말해 주는
나의 파트너 백왕이 있는 한,
내 군생활은 그리 힘들지만은 않을 거라 생각한다.
"고맙다, 백왕."

칠혹 같은 어둠이 내린 활주로 위. 불빛 한 점 찾아볼 수 없는 그 곳에 나는 서 있다. 인적마저 통제되는 공간과 시간. 나는 그 시간의 한 정점에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고와 누구보다 무서운 '나'라는 존재와의 싸움. 하지만 나는 두렵거나 외롭지 않다. 그 까닭은 항상 내 옆에서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밝은 두 눈동자의 주인공 '백왕'이 있기 때문이다.

백왕과의 첫 만남

2002년 1월 14일, 나는 군견 취급병이라는 보직을 명받고 제16전투비행단 헌병대대 군견반이라는 곳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어릴 적부터 개와 친근히 지내왔던 나는 누구보다도 이곳에서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다. '군견이라해도 결국은 네발 달린 동물이지. 밥만 잘 주면 알아서 따를 거야.' 때로는 군견을 알잡아 보기까지 했다. 하지만 군견과 처음 마주친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얼어 붙고 말았다. 보통 개들과는 다른 산만한 덩치, 한번 물면 뼈까지 으스러져 버릴 것만 같은 단단한 송곳니, 그리고 매섭게 쳐다보는 두 눈매까지. 처음 마주친 나를 보고 경계하며 내뿜는 그들의 소리는 호흡을 멈춰버리게 했다.

그렇게 굳어 버린 나를 보고 선임병은 웃으며 말했다. "나도 처음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적응되더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군견이 인간보다 더 나은 점도 있고, 군견들은 자기가 한번 충성을 맹세한 사람에게는 절대 배신하는 법이 없거든." 누구보다 씩씩하게 대답은 했지만 솔직히 군견에게 다가 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멀찌감치 떨어져 군견에 대하여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던 중, "자, 이리와 봐라. 이 군견이 이제 너랑 한 조인 녀석이다. 만져 봐."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가까이 다가서기조차 두려워하고 있던 내가 쓰다듬는다는 것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나의 마음을 알았는지 나의 선임병은 "이 녀석은 순한 테다가 금방 군견반 식구들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거든. 만져도 괜찮아." 설마 녀석에게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만은 그래도 조금은 용기를 얻어 그 녀석에게 다가갈 수 있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러자 그 군견은 내 손길을 피하지 않고 매우 반갑게 나를 맞이해 주었다.

기지경계의 든든한 보루

그것이 나와 '백왕'과의 첫 만남이다. 백왕은 암컷으로 우리 군견반에서는 노견에 속한다. 하지만 워낙 인간과 잘 어울리고 군견 시범훈련 중 가장 까다롭다는 화구까지 용감히 뛰어 넘는 대담함에 우리 군견반에서 가장 사랑받는 군견 중 하나이다. 또한 어느 군견보다 예민한 감각능력을 지니고 있어 나의 임무인 기지 경계에는 더할 나위 없는 파트너이다.

군견이 기지경계에 주전력 요소로 쓰이는 이유는 인간보다 100배 이상 뛰어난 후각과 40배 이상의 청각을 지녔기 때문이다. 백왕도 이처럼 예민한 감각을 지니서 어둠속에서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어떤 일이 있어 나는지 알 수 있게끔 도와준다.

군생활의 동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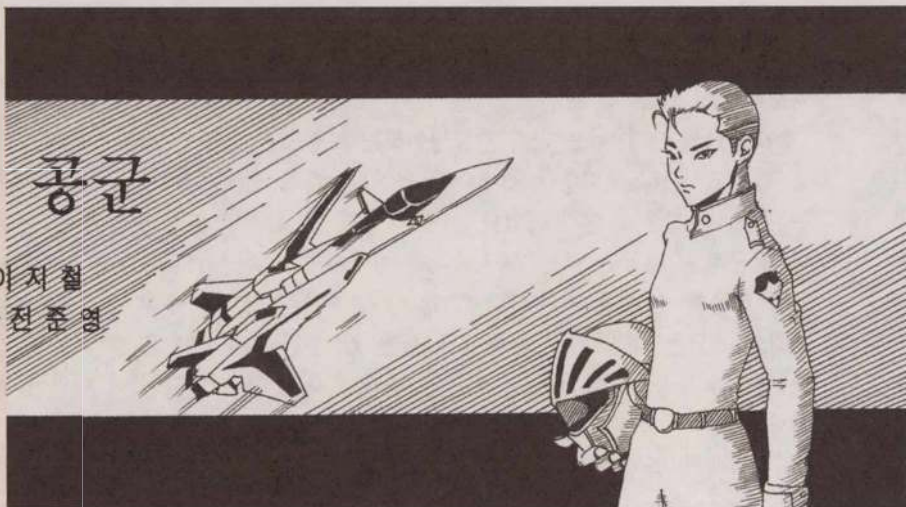
어떤 이들은 군견을 단순한 기지경계의 한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백왕을 보면서 느꼈다. 내가 기쁠 때면 내 앞에서 그 큰 덩치로 온갖 재주와 애교를 부리고 내가 슬플 때면 내 옆에 가만히 앉아 나를 애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준다. 백왕과 나는 단순한 군견과 군견 취급병이기 이전에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친구이자 든든한 동반자인 것이다.

나는 그 누구보다 군견병으로서의 나의 일에 만족한다. 활주로 위로 서서히 떠오르는 해를 같이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라고 눈으로 말해 주는 나의 파트너 백왕이 있는 한, 내 군생활은 그리 힘들지만은 않을 거라 생각된다. "고맙다, 백왕." ♣

2025년의 공군

글 · 제16전투비행단 병장 이 지 철

그림 · 제16전투비행단 병장 천 준 영



“휴우...”

가상 비행 시뮬레이션을 마친 김중위는 헬멧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다. 늘 하던 비행, 게다가 이번에는 가상비행이었지만 어느 때보다 긴장되는 건 역시 본 행사 전의 예행연습이란 부담감 때문일까. 그녀는 시뮬레이터의 문을 열고 나와 그녀를 맞이하는 선배에게 경례를 했다.

“필승, 수고하셨습니다. 손대위님”

“응, 너무 열심히 하는 것 아냐? 비행이 끝나고도 여기서 또 비행연습이라니”

“오호, 역시 대대에서 Fly-By에 나갈 조종사로 김 중위를 추천한 이유를 알겠군”

공군 창군 76주년을 맞게 된 2025년, 김현주 중위는 공군 대표로서 국산 최신에 주력기 UKF-02를 타고 에어쇼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제 1주 정도 남았건만 그녀의 선배인 손대위가 보기에 도 그녀는 워낙 열심히다. 손대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최초의 여성 전투기조종사가 탄생한 지 20여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여성 전투기조종사는 더 이상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니게 되었다. 그만큼 사람들의 시선이나 생각이 달라진 것이다. 여성 조종사 중에서 TOP GUN이 나온 것도 이미 까마득한 옛날일 아니던가.

“처음 그녀가 들어왔을 때는 걱정도 많이 되었

었는데...”

어느새 들어왔는지 정비과에 근무하는 이상사가 시뮬레이터반에 들어왔다. 그녀는 손대위와 김중위에게 경례를 한 뒤 밝은 미소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여부사관 출신으로 전투기 정비관리를 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 여성만의 특유한 섬세함으로 비행 전의 세세한 정비까지도 완벽하게 해내 여러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그녀.

“어서오세요. 이상사. 아무래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 했는데, 덕분에 비행 때마다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작전에 임할 수가 있어서...”

“뭐, 제 일이에요. 그나저나 여러 사람이 기대하고 있던데 연습은 잘되어 갑니까?”

세명은 오랜만에 즐겁게 얘기를 나누며 숙소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숙소로 가는 ‘오토레일’에 오르며 손대위가 말했다.

“내일 Fly-By도 중요하지만 각자 자신이 맡은 바의 최종목적을 잊어선 안됩니다. 하늘에서 지상에서, 조종사든 정비사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사람의 밝은 웃음소리가 별빛이 반짝이는 하늘에 울려 퍼졌다.⊕

수해복구,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제19전투비행단 일병 김 한 울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TV나 신문해서 자연 재해에 대한 소식들을 접할 때면 아주 단순하게 '아, 피해가 심하구나. 좀 안됐네...' 하는 막연한 느낌이 전부였다. 그리고 이기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에게 그런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던지 몰랐다. 지금 생각해보며 그때는 정말 철없는 생각들로 머리가 팍 차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많은 변화가 일기 시작한 걸 느끼고 있다.

우리가 수해지역 대민지원을 나간 곳은 충북 영동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다. 처음에 난 그저 '왜 하필 내가 그런 곳에 가야하나'라는 탄식에 가득 찬 불만뿐이었다. 버스로 장장 3~4시간을 달리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처음 그 곳을 보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마을은 악취로 가득하고 사방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집 형체를 제대로 갖춘 곳이 없었다. 거리는 온갖 오폐물로 가득 차 있었다. 전쟁터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곳에서 내가 일주일씩이나 시간과 힘을 허비해야 한다는 것이 더욱 불만에 가

득차게 할 뿐이었다.

그곳에서의 주된 일은 가옥정리와 오폐물 처리였다. 가옥은 장정 몇 명에서 힘을 주면 힘없이 쓰러지곤 했다. 난 아무 생각 없이 집을 부수라면 부수고 쓸모 없는 가구나 잡동사니들은 내다 버리는 일을 며칠 간 계속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기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던 나는 어느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다. 그 눈빛을 난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과 고민이 할머니의 눈에 담겨있었다. 그리고 할머니의 말 한마디는 지금까지의 내 행동과 생각들이 얼마나 철없고 이기적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할머니는 쉬고 있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집이 없으니 이제 어디서 사나' 하는 탄식 섞인 말씀과 '너무 늙어서 더 이상 농사일은 무린데 이제부터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 섞인 말씀을 하셨다. 그때 난 가슴속에서 울컥하고 무언가 올라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아내야만 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철없이 살았나하는 생각과 함께 이 모든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그래,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이기심을 버리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하자!' 이번처럼 나에게 큰 깨우침을 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수해복구 대민지원에 여념이 없는 장병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우리 모두의 일에 앞장서는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



KT-1 비행시뮬레이터 전력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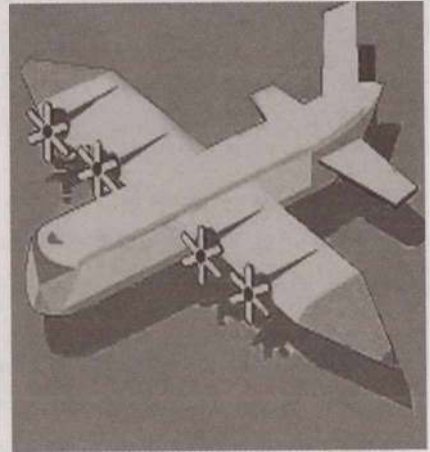
공군 중등비행교육과정에 활용되고 있는 최초 국산훈련기 KT-1을 위한 비행시뮬레이터(모의비행 훈련장비)가 국내기술로 개발되어 운용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발된 비행시뮬레이터는 실제 항공기와 동일한 조종석과 가로 200°, 세로 60°의 영상을 제공하는 최첨단 비행훈련장비이다. 또한 비행중 비정상 상황에 대비한 비상처치나 스핀, 실속 등 어떠한 악조건 상황에 대해서도 위험부담 없이 다양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대한항공 국내최대 정비시설 완공

대한항공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북측에 국내 최대규모의 항공기 정비시설을 준공했다. 길이 180m, 폭 95m, 높이 40m 규모의 격납고를 갖춰 세계에서 가장 긴 여객기인 B777-300기종도 정비할 수 있다고 대한항공은 밝혔다. 연간 경정비 550회, 중정비 10회 이상의 수용능력을 갖춘 정비시설의 완공으로 국제선 항공기에 대한 정비지원 향상과 인천공항이 동북아 중심(허브) 공항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준공된 정비시설은 2만 1,000여 평의 부지에 연면적 1만 2,000여평 규모의 격납고와 8개의 부속동으로 이뤄졌다.

보잉사, 초대형 항공기 제작 추진

미국 보잉사가 지금까지 제작된 모든 항공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신형모델 '펠리칸(Pelican)'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다. 펠리칸은 날개 길이만도 152m이며, 기체는 축구경기장(109m) 길이라고. 펠리칸은 공기저항을 줄여 해상 약 6m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갈 수 있으며 세계 최대 항공기인 러시아 안토노브225 화물수송량의 5배인 1,400여t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고도 6,100m 이상 날아오를 수 있는 이 항공기는 거대한 몸체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76개의 타이어가 달린 38개의 착륙기어가 있다. 특히 미 육군의 주력전차인 M-1 전차 17대를 한번에 수송할 수 있으며, 5일 이내로 전 사단을 배치할 수 있다고. 펠리칸은 심지어 우주선을 직접 싣고 대기 밖까지 올라가는 것도 가능할 전망이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정

건설교통부는 항공기운항안전법을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로 전면 개정하여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요골자는 항공안전 및 보안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며, 이번 개정으로 항공기내에서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활주로, 터미널, 공항, 각종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불법행위까지도 규제하게 된다. 항공기내에서의 불법행위는 기존 내용을 그대로 수용, 위험물 휴대·담습, 항공기내 과도한 음주·난폭행위, 전자기기 무단사용 등의 행위도 계속 금지된다.

공군 남/여 사관후보생 모집



공군 제110기 남/여 사관후보생 모집

공군은 21세기 미래공군을 이끌어갈 제110기 남/여 사관후보생을 모집합니다. 지원은 10월 1일(화)부터 14일(월)까지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4년제 정규대학 졸업(예정)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에 한합니다. 특히 이번 사관후보생 모집부터는 공군 사관학교 교관 및 군악장교 등의 분야에 여성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문의 : www.airforce.go.kr <공군모집>

제11회 항공우주심포지엄 및 무기체계 전시회

항공우주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리, 전략 및 항공우주무기체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공군이 개최하고 있는 항공우주심포지엄이 오는 10월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서울 63빌딩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21세기 항공우주정책 및 과학기술'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각종 항공우주, 전자전 및 모의훈련체계 장비를 소개하는 전시회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 공군발전세미나 02)506-5750 / 무기체계세미나·전시회 02)506-5827

제17회 공군참모총장배 행·패러글라이딩대회 개최

공군본부가 주최하고 공군사관학교가 주관하는 제17회 공군참모총장배 행·패러글라이딩대회가 오는 10월 26일(토)부터 27일(일)까지 경북 문경 단산 활공장에서 개최됩니다. 푸른 가을하늘을 배경으로 행·패러글라이딩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문의 : 성)6271, 043)290-6271



우주력 건설 연구誌 원고모집

항공우주군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주력 건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우주력 건설 관련 연구지 원고를 모집합니다. 원고모집 주제는 우주력 건설에 필요한 연구문/번역문, 군사적 목적의 우주활용 및 우주무기 현황, 공군의 군사적 목적 우주개발전략 등이며 원고마감은 오는 10월 31일(목)까지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 호)5833, 인터넷 e-mail : kjlee2@af.mil

『범죄학개론』/이만중 저/학현사/319쪽/18,000원

범죄의 원인, 범죄학 이론, 피해·가해자의 의식상태, 범죄예방, 국내의 주요 범죄사례 등을 망라한 범죄학개론서. 실무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을 법이론에 접목한 이 책은 대학 경찰관련 학과 교재로 채택되기도 했다. 저자는 현재 공군사관학교 헌병대장으로 근무하며 법률학과목 강의도 맡고 있다.



이달의 문제

1			2			3		
4	㉓	5			6 ㉑	7		
		8						
	9 ㉔					10		11
					12			
	13			14 ㉒				15
			16					
17		18						
		19				20		

▶ 가로열쇠

1. 국회 상임위원회의 하나. 국방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
지요.
3. 인생에 있어 짝이 되는 사람. 배우자라고도 합니다.
4. 프로축구 수원삼성의 미드필더. 양팡테리볼. 원발의
마술사
6. 산란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미
8. 머리 위에 수구멍이 있는 자리. 腦天이라고도 합니다.
9. 종로에는 ○○나무를 심어보자~.
10. 우리나라의 대표적 민요. 지역마다 특색이 있지요.
14. 일제 식민통치의 중추. 일반적으로 '나까무라'는 다
여기서 일했습니다.
17. 종이 · 붓 · 벼루 · 먹
19. 안전핀이 먼저야, 손잡이가 먼저야. 일단 '불이야~'
20. 장군의 아들의 아버지는 국군, 아니 ○○○이었다.
野人時代

지난호 정답/한기위

천				보		불	어	사	전
고	추	잠	자	리		고			투
마			장	수		기		현 ^㉑	복
비		가 ^㉒	면						국
			제			결	초	보	은
로	케	트				혼			행
	익		주	관	식				승
			경				신	생	아
	얼	대	야		위 ^㉓	병	소		
			독				설		

▶ 세로열쇠

1. 자격·면허를 주기 위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시험.
사시, 외시, 행시. 운전면허는?
2.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질 운명. '님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의 주제
3. 송강호 주연의 코믹레슬링 영화
5. 콜라보다 낫네. 생강을 달인 물에 꿀, 계피, 귤감, 잣
까지.
7. 율행이적 생각 좀 해라.
11. 우주선이 도킹을 위해 우주공간에서 만나는 것. 뭐,
일단 삼푸 이름이라고 해주지.
12.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에 첫 골을 선사한 주
인공
13. 언젠가 나왔던 문제 같은데... 색이 있는 연필. 빨간
색, 파란색. 상상력 빈곤
15. 무엇이든 제 생각대로 혼자 처리하는 사람. 앓, 김두한
의 아버지도 장군이다!
16. 동양화에서 채색을 쓰지 않고 수묵의 짙고 얇음으로
표현하는 그림
18. ○○자 관람볼가. 그래도 볼 건 다 본다네~.

① ② ③ ④에 들어갈 낱말을 독자엽서에 적어 10월 22일까지 보내 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열 분을 추첨하여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퀴즈로 퍼즐로 당첨자

서울시 용산구 국방홍보자료실 윤인수
충북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230 임상군
경남 진주시 상봉서동 1108-12 윤천석
충북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 이동근
경남 하동군 읍내리 340-1 김주현

강원도 화천군 용담리 사서함 93-13 일병 임동현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501-318 병장 최준혁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 TMO 상병 이경석
충북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 383-11 상병 남대근
경기도 성남시 수성구 심곡동 사서함 337-1 상병 이성보

패시네이팅 탱고 첫 내한공연

관능적이면서도 우아한 커플댄서의 몸짓, 숨막힐 듯 아찔한 관능의 세계를 느끼게 할 탱고의 향연이 10월 11일, 12일 양일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다이내믹하고 서정적인 남미 음악에 현란한 춤동작이 특징인 뮤지컬 쇼 '패시네이팅 탱고(Fascinating Tango)'는 7팀 커플댄서들이 다양한 주제와 스타일의 탱고춤을 선보이며, 상대를 응시하는 시선, 격렬했다가도 한없이 부드러워지는 탱고의 변화무쌍한 감성을 잘 보여준다. 다양한 감정을 담아내는 열정적인 춤 못지 않게 댄서들의 화려한 의상도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될 것이다.

문의 : 02-730-0658



네덜란드 댄스 씨어터

1999년 첫 내한공연으로 폭발적 반응을 얻었던 네덜란드 댄스 씨어터(NDT)가 다시 한국을 찾는다. 네덜란드 댄스 씨어터(Nederlands Dans Theater)는 네덜란드 국립발레단 출신 무용가 18명이 중심이 되어 1959년에 창단된 단체로 초대 예술감독인 벤자민 하커비를 중심으로 새로운 테크닉과 실험정신으로 무장하고 혁신적인 형태의 무용을 추구했다. 1975년 예술감독으로 지리킬리안이 임명되면서 천재성이 유감 없이 발휘된 그의 작품들은 고도의 테크닉과 음악과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어떤 무용단도 모방할 수 없는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보여주어 국제적인 명

성을 얻게 되었다. 10월 16일(화)부터 19일(토)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문의 : 02-780-6400



2002 부산합창올림픽 개최

종합예술축전이었던 고대 그리스 올림픽의 이념을 합창에 접목시켜 2년마다 각 대륙을 돌며 열리는 합창의 대제전이 2002년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다. '노래하는 인류, 세계는 하나'를 슬로건으로 주행사장인 BEXCO를 비롯,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수영로교회당 등에서 열리는 부산합창올림픽은 70개국에서 5백여개 아마추어 합창단, 2만 5천여명의 합창인이 참가하는 초대형 음악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1회 대회는 지난 2000년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개최되었다.

문의 : 051-740-9000





국민과 함께 하는 공군

공군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곁에는
언제나
대한민국 공군이 있습니다.

